



[뉴스] LGU+ - CJ ENM 송출중단 책임 공방 02



Economy

코스피	3249.32 (0.00)	코스닥	991.13 (0.00)
금리(국채 3년)	1.276 (-0.006)	환율(USD-달러)	1110.80 (-5.00) (11일)

'5兆는 무리'... 이베이 매각 불발되나

이번주 우협대상자 공개 롯데·신세계 '인수 2파전' 양사 입찰가 5조 못 미쳐 투자업계 매각 무산 예상



롭(이마트·네이버)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예비입찰에 참가했던 SK텔레콤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불참했다.

이베이코리아 본입찰에 들어간 롯데·신세계그룹이 써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5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이가 이베이코리아의 가치를 5조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만큼 3조원 중반~4조원 초반 수준이라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회원수·거래액 늘릴 카드

이베이가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인데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거래액은 20조원 가량이다. 가입자 수도 300만명에 달한다.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롯데나 신세계에게 단시간에 회원수와 거래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투자은행 업계는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무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베이 본사가 시간에 쫓기듯 옥션·G마켓을 매각해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이베이는 20조 291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의 온라인 판

고를 중개하는 사업부를 경쟁사인 노르웨이의 광고회사 아데빈타에 넘겼다. 매각대금은 92억 달러(10조4434억원)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상황에서 굳이 저렴한 가격에 이베이코리아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5월 예정된 본입찰 불발도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인수가가 이베이 본사가 희망하는 매각가와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5조원' 가치 글썩?

반면 유통업계는 이베이코리아가 제시한 5조원 몸값이 과하다는 판단이다. 네이버와 쿠팡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G마켓과 옥션, G9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드테크의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 줄 '푸드리더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기업 경영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일은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푸드리더'들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6월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1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1)'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란 주제로 그동안 제시해 온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들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루 앤 윌리엄스 이노바마켓인사이트 공동 창업자이자 글로벌 인사이트 이사가 기조강연을 맡습니다. 이노바마켓인사이트는 이노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업계 친환경 ESG경영'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에서는 저스트에서 글로벌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조단 테트릭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저스트는 실리콘밸리의 식물기반 푸드테크 선두주자로, 인공계란 '저스트 애그(JUST EGG)'를 개발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어 김대훈 누비랩 대표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누비랩은 1초 내 음식의 양과 종류를 파악하고 식습관을 분석해 개인 헬스케어 솔루션, 음식물 쓰레기 축소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세션에서는 식신 대표이자 한국 푸드테크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익 대표, 실시간 배송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유정범 매쉬코리아 대표가 연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
- 일 시 : 2021년 6월24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미디어(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주 관 : 에이커스
- 등 록 : 참가비: 일반참가자 110,000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30명 제한) *참가확인 메일 회신 필수 및 현장 학생증 제시
- 문 의 : 에이커스(02-6020-6833), 이메일 fftkgo@gmail.com
-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담 나누는 문-바이든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 앞 해변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에어쇼를 기다리며 회담을 나누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

'생활물류 대동맥' 택배 노·사 줄다리기 점입가경

노조, 이번주 파업수위 강화 배송 차질에 소상공인 울상

택배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그 '대동맥' 역할을 하는 택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사와 노동조합간 줄다리가 더욱 팽팽해지면서다.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번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노조가 "합의 아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며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파업으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의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는 등 차질

을 빚고 있다.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50.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경기 성남 분당·수정구 일부, 여주, 용인시 상현동 일부, 화성시 정남면 일부 등 수도권권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전체, 창원시 전체 등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단체인 택배대리점연합을 통해 지난 10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다. 전국 택배기사는 약 5만4000명이고, 이 가운데 12%인 650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우체국택배가 2750여명으로 가장 많고,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2430여명, 한진과 롯데가 500여명씩, 그리고 로젠, 쿠팡 등의 노조원이 가입해 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한 인원은 2100여명이고 나머지는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 배송 출발 등 태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전체 택배기사의 약 4% 수준만이 직접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이번 총파업이 '택배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한진과 롯데는 일부 지역에 대해 개별 택배 물품들을

배송하기 위해 모으는 집화에 대해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운반이 지연되며 택배를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서다. CJ대한통운은 집화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대리점 등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서울, 3일간격 '3인조강도' 공포... 경찰 "연관 없어"
- ▲ '5살 남아 뇌출혈학대' 20대 계부·친모 영장심사... 계부 "혐의 인정" /사진 뉴시스

- ▲ 광주 버스매물 생존자 "굉음만 기억날 뿐... 이후 병원이었다"
- ▲ 典 "6월 국회, 민생·경제 숨통 틔우겠다... 국회 협력 당부"



- ▲ 윤석열, 대변인 이상록 추가 영입... 조선·동아 '공보' 양축
- ▲ 취임 한 달 김부겸... "밥값 하는 총리 될 것... 복지국가 시작 노력" /사진 뉴시스

LG U+ 송출중단 책임 공방 CJ ENM

“과도한 인상” vs “불성실한 협상”

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

LG U+ “올 사용료 2.7배나 인상
고객들 볼모 채널송출 중단 주장”

CJ ENM “U+, 협상요구 계속되면
모바일TV 이용자 수척조치 안취”



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며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하면서 송출 중단 사태까지 몰고간 것은 CJ ENM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보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하고 있다. CJ ENM이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CJ ENM의 유료방송 시장 독식을 규탄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LG유플러스는 이후에도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어질 것이라며 타 통신사와도 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인 데다,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CJ ENM, “LG유플러스, 불성실한 협상이 원인”**

CJ ENM은 LG유플러스와 협상이 결렬된 것은 금액 인상이 아니라 불성실한 협상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U+모바일tv의 CJ ENM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 자체가 적어 인상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CJ ENM측은 “LG유플러스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계속 외면했다”며 “U+모바일tv에 대한 이용자 수조치 안 취,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추정된 가입자 규모로 공급 대가를 제안했으나 LG유플러스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IP TV 서비스를 ‘모바일 IPTV’라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OTT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CJ ENM은 높아진 OTT 위상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 콘텐츠가 제 값을 받기 위해 IPTV 프로그램 사용료와 별도 협상이 필요해, 콘텐츠 가격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CJ ENM측은 “U+ 모바일tv는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입·탈퇴가 가능하고 IPTV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이외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여서 별도 계약대상”이라며 “LG유플러스 등을 비롯한 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 값에 활용하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그러면서도 향후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사의 협상 결렬로 OTT ‘시즌’에 대해 현재 CJ ENM과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KT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 시즌에서도 CJ ENM 콘텐츠 실시간 방송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文, 공평한 백신 접근권 강조 백신 허브역할 수행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활동 소개**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 수행 의지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단기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 모색’ 의지를 전한 뒤 미래 팬데믹 대비 차원에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활동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 호주, 독일, EU(유럽연합) 정상 등과 모두 3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어 정상회의 이틀째인 13일(현지시간) ‘열린 사회와 경제’, ‘기후변화·환경’을 각각 다루는 확대회의 2, 3세션에 참여한다.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로 향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국민 방문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백신 1차 접종자 1180만명... 인구 23%

얀센백신 대상자 58% 접종 완료
접종 완료자 299만명, 인구 5.8%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118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23% 규모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은 전체 대상자 58%가 접종을 마쳤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세운 최대 14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기대도 높다.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2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1차 38만6223명, 백신 접종 완료자는 11만 7602명이다. 누적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 26일 접종 시작 107일 만에 1180만 2287명으로 집계됐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299만 2129명으로 전 인구의 5.8%다. 2회를 맞아야 하는 아스트라, 화이자 백신과 1회 접종 백신인 얀센 백신 접종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상반기 접종대상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63.1%, 화이자 84%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5.6%, 화이자 44.2%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이 시작한 지 3일 만에 대상자 중 58%가 접종을 완료했다. 추진단에 따

르면 얀센 접종 대상자 97만 7644명 중 56만 6847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 백신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 77만 6023명, 얀센 6만 1986명이다.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반기 1차 목표치인 1300만명 + α, 최대 14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14일부터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을 위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5일부서는 희귀 혈전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30세 미만 접종 목표 인원을 선착순 20만명으로 한정할 가운데 7~15일 예약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대상자들이 몰리며 3일만인 지난 9일 사전 예약이 마감됐다. 앞서,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얀센 접종 예약 역시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추진단은 오는 17일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접종 계획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40,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입 수험생 등에 대한 접종 일정이 담길 전망이다. 3분기 1차 접종 대상은 2300만명 이상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막 오르는 3강 체제... 중금리 대출·신용평가모델 격돌

kakaobank K bank toss

금융 이슈리포트

인터넷전문은행 경쟁

금리인하 등 고객확보 경쟁 본격화
카카오 중금리대출 한도 1억 설정
케이 중금리대출 비중 32%로 확대
토스 15등급 세분화된 CSS 구축

점포는 없고 인터넷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토스뱅크까지 진입한다.

이들은행은 금융데이터와 함께 통신요금 납부정보,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신용평가모델을 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은행의 설립목적이 '중금리 대출 확대'인 만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토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2월 본인가를 신청해 4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 실제 거래 테스트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연계 등의 후속작업 등을

<인터넷은행 개인 신용평가 모델>

/금융위원회, 각 사

구분	활용정보	예시
카카오뱅크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결제내역, 공공정보 등
케이뱅크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	BC카드 결제내역, KT통신정보 등
토스뱅크	앱 이용 고객 카드 및 계좌정보	휴대폰번호 변경이력, 최초 신용카드 개설일 등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은행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영업초기부터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목표는 올해 말 34.9%에서 내년 말 42%, 2023년 말 44%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10% 안팎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빅3 경쟁 본격화... 중금리 대출 격전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늘리면서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더 낮은 금리로 은행을 옮겨다니는 금리 노마드(유목민)족이 중·저신용자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 신용대출의 12.1%로 시중은행(24.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중금리 대출의 대부분은 보증부 사잇돌 대출이 91.5%로 민간중금리 대

출(8.5%)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사잇돌 대출의 66%가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비중을 내년 25%에서 2023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코리아크레딧부로(KCB) 신용점수 820점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도 낮췄다. 중금리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는 최대 1.52%포인트 낮아진 2.98%다.

케이뱅크도 중금리 대출 비중을 내년 25%에서 2023년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실명계좌를 내주며 수신잔액을 늘리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달 말 수신잔액은 12조1400억원으로 3월보다 3조4200억원 증가했다. 늘어나는 수신잔액만큼 대출여력이 확대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는 분석이다.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관건

다만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 이들 은행은 상환역량을 파악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에 매진할 전망이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연체·상환이력 등의 데이터가 부족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의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것. 신용평가모델에 금융거래실적,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 금융데이터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납부정보,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를 포함해 상환역량이 충분한 중·저신용자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한 플랫폼,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누적된 고객데이터를 분석해 CSS에 반영한다. 또 카카오페이 등으로 모인 결제정보와 공공정보(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을 활용해 대안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또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통신료 납

부정보 등을 결합해 중신용자·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을 구축하고 있다.

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관계사의 데이터를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에 반영한다. 최대주주인 비씨카드 결제정보와, 다날의 휴대폰 결제정보, 모회사 KT의 통신정보 등을 활용해 CSS를 구축한다. 케이뱅크는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승인 최소기준을 과거 6등급에서 일부 9등급 고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토스뱅크는 종합 금융앱 토스를 통해 누적된 고객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적금융정보 비중은 줄이고 대안정보 비중을 늘렸다. CB사가 평가한 1~10등급의 신용평가정보를 1차적인 검증장치로 활용하고, 이와 함께 토스앱에 저장한 카드 및 계좌내역, 부동산 정보등을 반영해 15등급의 세분화된 CSS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토스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상승·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인 만큼 신용평가 모델을 끊임없이 고도화 해 나갈 것"이라며 "출범과 동시에 차질없이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주주 지분가치 희석 vs 기업 재평가 계기

만도 물적분할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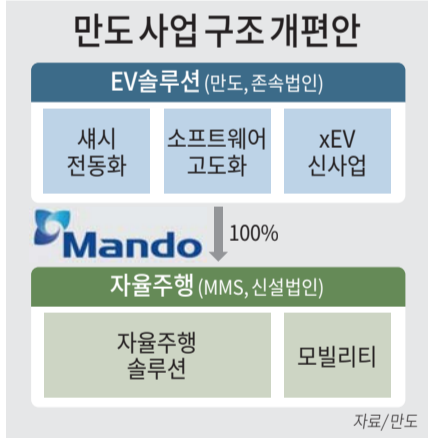
분할발표 후 12.3% 이상 주가하락
일각선 기업 성장성 제고 의견도

자동차 부품 계열사 만도가 물적분할에 나선다. 지분가치 희석으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사업분할을 통해 기업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일 만도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전기차(EV) 솔루션'과 '자율주행(ADAS)'을 양대축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합산 매출 9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0일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신설법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MMS·가칭)는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만도가 MMS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

조성현 만도 총괄사장은 "만도와 MMS, 양사 모두 전문 기업으로서의 가



치를 인정받아 주주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만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00원(-1.38%) 하락한 6만4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물적분할 발표 이후 12.3% 이상 하락했다.

만도의 단기적인 주가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을 같은 방식으로 물적분할 했을 때 주가는 하루 만에 6%가량 하락하는 등 주주들은

분사를 악재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만도가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선택해 기존 주주들은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을 단 한주도 갖지 못한다. 차후 기업공개(IPO)가 진행되면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를 볼 때 기존 주주 관점에서 ADAS 사업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로는 부정적 이벤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분할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설법인인 IPO, 전략적투자자(SI) 등 다양한 투자 유치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분할을 통해 레벨(Level) 4 이상의 자율주행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을 기대하며, 글로벌 산업 수요를 능가하는 존속법인의 성장성 등을 포함한 전사적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국민 볼모로 강요 vs 불법 대체배송 통제

<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

>> 1면 '생활물류 대동맥'서 계속

업계 관계자는 "전체 택배기사 대비 파업에 동참한 인원이 적어 전반적으로 택배 운반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인원 대체가 쉽지 않은 몇몇 지역에선 배송이 지연돼 일부 회사의 경우 대리점과 협의해 집화제한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앞서 성명서를 내고 택배노조에게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물류협회는 "택배노조는 구역이나 물량조정 방법에 대해선 대안 제시 없이 '소득 감소 없는 작업시간 감축'만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달성하려 한 궁극적 목적은 작업시간 단축이 아닌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익 확대임이 명확해졌고, 수수료를 인상해야만 자신의 구역 또는 물량을 줄이는 데 동의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이며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소득 감소 없이'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또 택배기사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분류작업을 하게되면, 그 대가에 상응해 소득 감소가 없는 범위내에서 배송 작업 시간도 줄게 된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그 이행 시기 등을 협의하던 중이었고, (진행되고 있는) 2차 합의가 타결되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당 실질 소득은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당시 택배 노사, 정부, 정치

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1차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우 4000명, 한진과 롯데는 각각 1000명을 분류작업에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고, 징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위반, 계약요금 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으로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택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물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파업에 빨아 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성명서에서 "거듭되는 과로사 문제로 택배 분류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 기업과 소비자,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택배노조는 신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바로 수익창출 어려워... 승자의 저주 우려

1면 '5조는 무리... 이베이'서 계속

불과 3~4년 전만 해도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였지만, 네이버와 쿠팡의 외형성장에 뒤쳐진 게 사실이다. 물류센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단점이다.

이베이코리아의 물류센터는 경기도 용인·동탄·인천 3곳 뿐이고 신선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쿨드체인(저온물류) 시설은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롯데, 두곳

모두 3조원 후반에서 4조원 초반을 제시했을 걸로 예상된다"며 "이보다 높은 금액이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사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인수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면 인수 후 시너지에 대해 미리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3040 벤처 CEO 열전 ⑧ 마이세프 임종억 대표



간편조리세트, 新산업 가능성 확신 “글로벌 식탁에 우리 제품 올릴 것”

“마이세프를 밀키트 종합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임종억 마이세프 대표는 ‘밀키트’라는 개념도 정립되기 전인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 인물이다. 마이세프는 올해 5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내년에는 밀키트 기업 1호로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세프가 지난 10여년간 순탄하게 성장만 해왔던 것은 아니다.

환경공학 전공, 가구 DIY 개념 주목
생소했던 밀키트 산업기반 조성 앞장
시리즈B 완료... 누적 투자 190억 유치

◆평범한 공학도가 276억원 규모 밀키트 기업을 탄생시키다

임종억 대표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원을 거쳐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공학도의 길을 걸어오던 그가 마이세프를 창업하게 된 것은 2010년 가구 DIY가 국내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고 요리에 DIY 개념을 적용해보자는 생각에서 부터 시작했다.

설립 당시 마이세프 직원은 임종억 대표 외 2명뿐이었다. 창립 초기 임 대표는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부터 포장까지 직접 했으며, 여기에 CS와 디자인 등 소유품 관리까지 담당했다. 창립 첫해 매출은 6개월 동안 약 2600만원이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마이세프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276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4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성장성과 건실도를 인정받아 시리즈B 투자를 완료하며 총 누적 투자액 190억원을 유치했다.

마이세프 측은 “이렇게 마이세프가 고성장하는 밀키트 산업의 주축을 담당하는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밀키트 생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하며 노하우를 쌓고, 이를 활용해 ‘밀키트 산업’을 열겠다던 임종억 대표의 욕심과 선견지명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빛 발하는 선견지명·욕심 경영

국내에서 밀키트라는 신사업을 시작한 임종억 대표에게 주어진 과업은 설득의 연속이었다. 밀키트는 지난해 드디어 ‘간편조리 세트’라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인정받았지만, 그전까지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HMR과 같이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되어 규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임 대표는 이처럼 식품유형조차 정립되지 않은 시기부터 밀키트의 개념을 알리고, 적합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앞장서서 시장의 기반을 다져왔다.



마이세프 홈페이지 갈무리

임종억 대표는 “10년 전인 2011년에 처음 사업을 등록할 때는 단순 음식점업 신고로 종용받는 상황에서 왜 식품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했고, 3년 전인 2018년 600평 규모의 공장을 구축할 때는 과감한 선투자를 우려하는 직원들에게 대량 생산체계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했다”며 “모든 설득의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밀키트는 단순히 시장이 아닌 하나의 식품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결론적으로 임 대표의 선견지명은 들어맞았다. 밀키트 시장은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궤도를 그리며 성장했고, 미리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춘 마이세프는 급증하는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었다.

임종억 대표의 욕심은 기업 경영은 물론 고객에게 선보이는 제품의 품질 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이세프에는 전사가 공유하는 세 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는 ‘검증된 맛의 밀키트를 선보이는 것’. 마이세프는 시판된 소스가 아닌 직접 개발한 소스를 사용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500여 개의 레시피를 개발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국민일보 주최 컨슈머리포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문 호텔 세

프들로부터 맛을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한국 식품연구원 주최 식품기술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둘째는 ‘안전과 신선 면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일례로 마이세프는 일찍이 밀키트 제품으로는 최초로 HACCP(해썹) 및 ISO 22000 인증을 획득했다.

어린이제품 등 다양한 라인업 확대 12월 ‘첨단 자동화 공장’ 완공 예정 “표준화된 생산라인으로 글로벌 진출”

마지막으로 국내에 가장 먼저 밀키트를 선보인 기업으로서 안주하지 않고 ‘산업 발전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교육 체험용 제품, 다이어터들을 위한 썬샐러드 제품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확장하며 밀키트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세프에게 2021년 ‘성장 모멘텀’의 해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마이세프는 올해 또 한번 뜻깊은 성장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 밀키트 업계 최초로 ‘첨단 자동화 공장 완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현재 노동집약적이고 생산 비효율적인 밀키트 제조 전 공정들을 획기적으로 자동화해 생

산 효율성을 가공식품 자동화 공장 수준의 80~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밀키트 산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밀키트 산업의 수익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임종억 대표는 “밀키트에 최적화된 표준형 자동화공장이 완료되면, 국내 B2B 사업 확장은 물론, 동시에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이세프는 매드포칼릭, 쿡캣, 농협하나로마트 등 식품 기업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OEM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자동화 공장은 일평균 약 10만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많이 늘어난 생산 수용 능력으로 수익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임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400여개 밀키트 기업의 위탁 제조와 직접 제조까지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는 “도요타의 표준화된 생산라인이 전 세계 공장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조립 산업인 밀키트의 마이세프 공장이 전 세계 밀키트의 표준화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종 목표는 ‘밀키트 종합 기업’

임종억 대표는 밀키트를 식품산업의 마지막 남은 영역의 산업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이전에는 밀키트를 HMR에서 파생되는 한 부류 정도로 여겼지만, 현재 밀키트는 여럿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으며 지난해 국내에서만 약 1500억원, 미국에서는 5.3조원 규모를 달성했다. 2024년 국내 밀키트 시장은 700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해서 성장할 밀키트 수요에 맞춰 마이세프는 제품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을 확장하는 ‘밀키트 종합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임종억 대표에게 현재는 지난 10년간 마이세프의 고민과 열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임 대표는 “이 기세를 몰아 첨단 표준화 공장, 식품 R&D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식탁에 마이세프 밀키트를 올릴 것”이라고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모듬닭쌈 썬 샐러드. 마이세프는 ‘산업 발전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를 위한 교육 체험용 제품, 다이어터들을 위한 썬샐러드 제품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마이세프

가입 문턱 낮춘 '간편심사보험'... 보험업계, 고객 유치 치열

간소화된 계약심사로 가입 간편
교보생명, 유병자보험 라인업 구축
유병자보험 고객 수요 높아져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보험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뜨겁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6종에 이르는 유병자보험 라인업을 구축했다. 최근 '(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다양한 건강보장을 결합한 간편심사 종신보험이다. 3가지 질문에 답하면 간소화된 계약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경증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3

가지 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다.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최근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NH농협생명도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갱, 무)'을 새롭게 선보이며 간편심사보험 상품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 두 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 가능하다. NH농협생명은 이를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객에게 보험 가입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ABL생명도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

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출시하며 업계의 눈길을 모았다. ABL생명의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암보험(갱신형)'은 한 가지 고지항목만 충족하면 암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

특히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도 신규로 탑재했다.

AIA생명은 이색 협업을 통해 간편심사보험 선택의 폭을 넓혔다. AIA생명의 최근 삼성카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카드 고객 전용 '(무)AIA 100세 든든 슈퍼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다.

협약을 통해 AIA생명과 삼성카드는 보험 인수 심사(언더라이팅)를 위해 양사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심사 제도 'DDUW(Da

ta Driven Underwriting)'를 확립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고객 개인별로 보험 가입에 필요한 고지 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 상품 트렌드가 기존의 종신보험이나 CI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유병자보험 쪽으로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한 만큼 유병자 고객의 수요도 높은 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런 고객과 보험사들의 수요가 잘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우리銀, '우리WON기업' 가입 이벤트

선착순 5000명에 스타벅스 쿠폰

우리은행은 우리WON기업 최초 가입고객 대상으로 '웰컴! 사장님, 우리WON기업 이용하고 스타벅스 쿠폰 받으세요!' 이벤트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WON기업을 최초 가입하고 로그인한 개인사업자가 이벤트에 응모하면 선착순 총 5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더불어 추가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 8잔 세트를 100명에게 제공한다.

우리WON기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기업 전용 banking 앱으로 고객별 맞춤 화면제공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 예금 가입, 전자어음/채권 결제, 신용장 개설은 물론 최대 500건까지 대량이체와 간편잔액채우기, 자금관리메뉴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우리WON기업 앱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 인터넷 banking, 모바일 banking 가입까지 한번에 가능하고, 기업banking 앱 최초로 디지털 OTP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WON기업의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신규가입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등 기업고객을 위한 전용 콘텐츠를 우리WON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하나銀, 中유한공사와 현지가맹점 지원 협약

중국 현지화 전략 심화
현지 특화 대출상품 출시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가 골프존차이나와 중국 현지 가맹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호혜호리, 합작공영(서로 이익과 혜택을 얻고, 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다)'을 목표로 삼아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의 중국 현지화 전략 심화 및 골프존차이나의 중국 현지 손님 대상 가맹점 사업 확대를 위해 체결됐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골프존차이나 가맹점들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스크린골프 기계 신규 구입을 지원하는 현지 특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골프존차이나 가맹점들은 이번 대출 상품으로 대출기간 최장 2년, 업체당 최대 300만위안(원화 약 5억원)까지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임영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법인장(왼쪽 세 번째)과 박성봉 골프존차이나 대표이사(두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임영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법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중국내 동반 성장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중국 진출 기업, 중국 현지 손님과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K-금융의 혁신 모델

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작년 11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 '앤트 그룹'과 제휴하여 모바일 지점 '하나샤오퉁슈'를 오픈하여 모바일을 통해 현지 특화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플랫폼도 운영중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오른쪽)이 우리 농산물과 위문금을 전달하며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강선영 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국군장병 위문

농산물·위문금 전달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 권준학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불사조부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우리 농산물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권 행장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농협은행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3가지 기억하세요"

금감원 Q&A

Q. 최근에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시도했는데, 접속량 급증으로 접속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지점에 방문해 무사히 매도 주문을 했는데요. 추후 이러한 전산장애가 다시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 청약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청약 후 이익실현을 위한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모바일이나 가정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산장애가 발생해 MTS 등을 통한 매도나 매수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다음 3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없이 증권사 지점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이나 고객센터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당

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의 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매매의사가 전화나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상을 원하는 주문 시간, 종목,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매거래중단제도, 단기과열 완화제도,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들에 해당합니다. 이는 증권사 전산장애가 아니므로 거래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영석 기자 ysl@

이르면 7월 국제선 재개... 항공업계, P-코로나 준비 박차

〈포스트 코로나〉

제주항공·진에어·아시아나 등
괘·사이판 노선 운항, 계획 마련
대한항공, 국내·국제선 전노선에
국내최초 '수하물탑재 안내서비스'
티웨이, LCC 첫 IATA트래블 패스



대한항공 항공기.

항공업계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제선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이 가능한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한다. 출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상대국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관광이 가능하다. 현재 싱가포르와 단체여행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 부문에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 당국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항공업계는 국제선 운항을 위한 각종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항공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며 여행 수요가 대폭 줄어 대부분 국제선을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항공사는 주 1회 괘, 사이판 노선을 운항 중이거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약 1년 3개

월 만에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 중이다. 진에어는 주 1회 괘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인천-괘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사이판 노선의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지난 달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전 노선에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승객이 수하물을 부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기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향후 승객이 늘어나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은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위해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추진 중인 '트래블 패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IATA 트래블 패스란 항공 여행을 하는 승객이 각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코로나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여부를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다. 현재 종이 문서로 이뤄지는 검증 절차보다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티웨이항공도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최초로 IATA 트래블 패스 시범 운영 실시에 합의하며 국제선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 전 트래블 패스 앱을 통해 여권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해 본인의 입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티웨이항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반등할 여행 수요에 대비해 중대형 항공기 A330-300 3대를 내년 2

월부터 5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중대형 항공기를 도입해 국제선 운항이 활발해지면 호주 시드니, 크로아티아, 호놀룰루,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노선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변화할 항공 시장에 발맞춰 최근 LG CNS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항공 산업의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정비 이력, 항공 종사자 자격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항공 산업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한편 글로벌 항공 동맹체 3사도 업황 회복 기대감에 직접 G7 정상회의서 국가 공통의 여행·보건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스타얼라이언스·원월드·스카이팀은 ▲백신 접종 완료 시 입국 후 격리 면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낮추되 접근성과 신뢰성 확보 ▲중간 기착지 미입국 환승객에게 추가 검사, 격리 면제 등을 권고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실시간 차량관리, 자율주행 등 '미래차' 위해 車업계, 앞다퉈 '커넥티드' 도입 경쟁

볼보트럭코리아·만트릭, 신차 공개
차량 정비시기, 운전습관 등 모니터링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기아 유보
차량 무선통신 '텔레매틱스' 도입

자동차 업계가 커넥티드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나섰다. 막대한 투자를 감수하면서 긴급 서비스와 실시간 차량관리, 콘텐츠 서비스를 비롯해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까지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트럭코리아는 최근 '볼보 커넥트'를 국내 업계 최초로 론칭했다.

볼보커넥트는 무선 통신으로 서버와 연결해 긴급 호출뿐 아니라 원격으로 차량 정보를 모니터링해 정비 시기와 고장 등 차량 상태를 상시 관리 받을 수 있다.

만트릭도 최근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리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파악하고 예방정비까지 제공해주는 원격 서비스다.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차에도 도입될 것.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차량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현대자동차 블루링크와 기아 유보가 대표적, 상용차에도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텔레매틱스는 종전까지 긴급 호출이나 정비 예약, 원격 시동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들어 차량이 대부분 전자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쓰임이 대폭 늘어났다. 영상이나 음악 등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위치 탐색과 결제, 개인화와 인공지능(AI)까지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 커넥티드다.

제네시스 커넥티드는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거나 시동, 공조 및 시트를 제어하는 것뿐 아니라, 차량 이상을 감지해 원격으로 점검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항 습관을 분석해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OTA) 역시 커넥티드 서비스로 이뤄진다.

수입차 업계도 커넥티드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019년 벤츠와 BMW가 각각 '메르세데스미'와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아우디를 비롯한 폴크스바겐그룹 브랜드들도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도 올해부터 LG전자와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피비프로'를 통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에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텔레매틱스 서비스에는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하다. 차량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는 것뿐 아니라, 자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S를 개발해야 하고 현지에서 서버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최근 자동차 업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약을 맺거나 업체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동화와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에 연간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브랜드가 발빠르게 자체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알려졌다.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선불리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업계가 서비스 구축에 힘을 쏟는 이유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차량 관리와 콘텐츠 제공뿐 아니라, 수준 높은 자율주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커넥티드 서비스, 텔레매틱스가 필수다.

/김재용 기자

제조업계, '친환경 신사업' 세제지원 절실

대한상의, 친환경 신사업 실태·과제
42% 세제지원, 39% 법 합리화 필요
62% 추진계획 없다, 21%만 '추진중'

제조업계에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 신사업 추진실태와 과제'를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42%가 친환경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세제·금융 지원'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법·제도 합리화'(38.7%), '정부 R&D 확대'(17.7%), '인력양성'(1.6%)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62.3%나 됐다. 20.7%가 추진중이고, 추진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친환경 신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2050 탄소중립, 탈(脫)플라스틱 등 국내외 환경정책 대응'(38.6%)이 가장 많았고, 'ESG경영실천'(27.9%),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24.3%), '이해관계자 요구'(7.1%)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실제로 적지 않은 국내 제조사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신사업 아이템으로 접근하거나, 기존 주력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친환경 신사업 분야는 탄소감축사업

이 54%로 절반을 넘었다.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사업'(30.1%),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28.3%), '환경오염 저감 사업'(16.8%)도 많았다.

추진단계는 '사업검토'(40.7%) 또는 '착수 단계'(26.6%)가 많아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해외 제조기업은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R&D와 대규모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제조기업도 강점인 글로벌 Top수준의 기술·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친환경 신사업 시장을 선점한다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유플러스, 안양에 IDC 평촌2센터 착공

축구장 6개, 지하 3~지상 9층 규모
수도권 7번째 IDC... 2023년 준공

LG유플러스가 축구장 6개를 합친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 평촌2센터(가칭)를 경기도 안양시에 구축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3분기 준공을 목표로 신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 평촌2센터 착공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하는 평촌2센터는 연면적 4만 450㎡로, 지하 3층, 지상 9층, 약 10만대 이상 서버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급 규모로 수도권 지역 7번째 IDC다.

1999년 국내 최초로 서울 논현동에 전용 IDC를 구축해 IDC 사업을 시작

한 LG유플러스가 평촌메가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짓는 하이퍼스케일급 IDC다.

LG유플러스가 신규 IDC를 구축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LG유플러스 평촌2센터의 큰 특징은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설계 단계에서도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했다. 서버가 놓인 바닥 아래 냉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 이중마루를 제거하고 서버에 직접 냉기를 공급하는 새 공조시스템을 통해 서버실 내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특정 지점이 온도가 높은 핫스팟을 최소화했다.

고객 요구사항별 다양한 전력 제공



LG유플러스가 축구장 6개 규모의 '평촌2센터'를 짓는다.

/LG유플러스

도 가능하다. 한편으로부터 154kV 수전 전력을 통해 고객 요구 및 장비특성에 맞춰 랙당 최대 20kW까지 다양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객 확장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 IDC는 2020년 2278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0% 성장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1급수에서만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물총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천 죽당천, 멸종위기종 1급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서식

깨끗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
SK하이닉스는 ESG 경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 물 경영 부문 대상 수상
- 최적의 정화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줄입니다
방류수 재활용 시스템 및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역 수생태계를 지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를 통한 생태계 피해 방지

‘불편한 AS’ 옛말... 국내 수입차업계, 소비자 만족도 강화

수입차 약점 ‘사후 서비스’ 개선
지난해 수입차 역대 최대 판매
서비스센터 확대 등 편의성 강화

국내 수입자동차업계가 서비스 센터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 강화에 집중한다. 그동안 수입차의 약점으로 불리던 사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업계의 서비스 센터 확대는 판매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는 코로나19 악재에도 27만 4859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2018년 26만 705대 이후 역대 최대 판매 기록으로 전년(24만 4780대)과 비교하면 12.3%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누적 등록대수 12만 15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독일 3사는 물론 미국과 일본 브랜드의 성장세도 눈길을 끌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차 브랜드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소비



BMW코리아가 자유로 서비스센터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강릉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한성자동차) 외부 전경

자들이 그동안 수입차 구매를 고민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 브랜드 대비 사후 서비스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 서비스 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부품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전국 총 59개 공식 전시장 및 73개 공식 서비스센터 그리고 1200개 이상의 워크베이를 단일 수입차 브랜드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보

유 중이다. 특히 서비스센터는 2014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전 고객 대상 ‘무상 차량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와 ‘무상 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거리에 관계 없이 공식 서비스센터까지 무상 차량 견인 및 사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로 사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기부 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말 구독형 차량 관리 서비스 패키지 ‘BMW 프라임’을 선보였다. 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BMW 차량물류센터를 확장하고, 출고 전 차량 검사를 확대해 고객들의 차량 인도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9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불보코리아는 2023년까지 서비스센터 52곳, 워크베이를 312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불보코리아는 김해, 구리, 서대구, 서울 강동, 강남 율현 등 5개 지역에 신규 서비스센터를 개설하고 워크베이를 20%까지 확충할 계획이

다. 또 전문 테크니션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투자들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만대 클럽’ 재진입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브랜드 지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1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프도 고객 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프는 24시간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지프 케어’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최고의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프는 하반기 신차 공세와 함께 현재 18개인 서비스센터와 워크베이를 늘려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는 한편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도 서비스 센터 확대에 고삐를 쥔다. 캐딜락코리아는 올해 안에 캐딜락 서비스센터를 2개 이상 확장할 예정이다. 또 AS센터에 미리 예약을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진행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네이버 웹툰, 3개국 월사용자 1200만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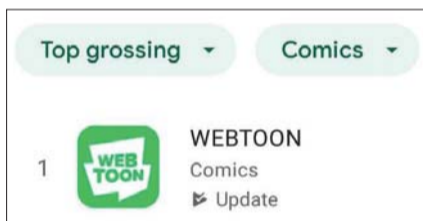
3개 국가서 사용자 수 1위
현지 아마추어 창작자 지원

네이버웹툰이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 월간 순 사용자 수(MAU) 1200만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미국과 대만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 신호탄을 쏜 네이버웹툰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인기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한 데 이어, 수익화에도 성공하면서 콘텐츠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의 인도네시아 MAU는 690만을 달성했으며, 태국과 대만에서는 각각 350만과 150만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앱애니 구글플레이 만화앱 기준으로도 3개 국가에서 모두 사용자 수 1위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웹툰 대중화를 이뤄냈다.

네이버웹툰은 탄탄한 사용자 규모를



구글플레이 인도네시아 매출 순위(11월 기준). /네이버

기반으로 ‘Daily Pass(완결보기)’와 ‘Fast pass(미리보기)’ 등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수익에서도 독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대만에서 만화 앱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지난 5월 앱애니 기준(구글플레이) 게임 앱을 제외한 전체 앱에서도 매출 4위를 차지하며 앱마켓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투자한 콘텐츠퍼스트의 태피툰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네

이버웹툰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다. 태피툰은 190개 국가, 400만 명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네이버웹툰은 지난 3월 사업 제휴와 콘텐츠 확보를 위해 콘텐츠 퍼스트의 지분 25%를 취득했다.

네이버웹툰이 사용자와 매출에서 석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이버웹툰만의 창작 생태계가 있다. 네이버웹툰은 ‘여신강림’ 등 국내의 검증된 콘텐츠를 번역해 현지에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알려왔을 뿐 아니라, ‘CANVAS(캔버스)’를 통해 현지 아마추어 창작자를 성장시켜왔다. ‘CANVAS’에서는 누구나 실력을 인정받으면 정식 연재 작가가 될 수 있어 현지의 감성이 반영된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콘텐츠 역량을 키워 동남아 1위 지위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채윤정 시전문 기자 echo@

KT, ‘Y 아티스트 프로젝트’ 공개

신진 아티스트 발굴

KT가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 예술계의 신진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KT의 MZ세대 브랜드인 ‘Y’의 새로운 컬처 프로젝트로 Y의 슬로건인 ‘있는 그대로 빛나는 Y’의 취지에 맞게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Y 아티스트’로 주목하며 이들과 함께 협업 상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상품은 국내 수제 맥주 대표 브랜드인 ‘핸드 앤몰트’와 함께 신상품 ‘Y끼리 IPA’다. 핸드앤몰트는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와 콜라보레이션한 ‘유미맥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핸드앤몰트의 상상력과 세련된 취향이 만나 탄생한 ‘Y끼리 IPA’는 여름 시즌에 맞는 열대 과일 향과 시트러스 향 아로마로 부드러운 목넘김에 가볍게 마실 수 있는 IPA다. 디자인은 첫 번째 Y 아티스트로 선정된 일러스트 작가 ‘일이칠(127)’과 함께 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브랜드와 합

발한 활동 중인 일이칠 작가는 인물의 눈을 블랙박스 가리고 작품의 키워드나 인물의 이름을 넣어 작품의 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Y끼리 IPA는 이달 중순부터 현대백화점의 주요 지점을 시작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또한 한정판 패키지 ‘Y끼리 IPA 스티커팩’인 에일 4캔과 리미티드 스티커로 구성된 패키지도 구매할 수 있다. 또 Y 아티스트 프로젝트 론칭 기념으로 ‘스페셜 굿즈 패키지’도 함께 선보인다. 스페셜 굿즈 패키지는 ‘집 안(IN)’ 콘셉트의 홈 술 파티를 도와줄 테이블 매트, 맥주잔 세트와 ‘집 밖(OUT)’ 콘셉트의 야외활동을 도울 일회용 필름 카메라 등으로 구성됐다. /채윤정 시전문 기자



스타트업 아우토반 그리팅데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벤츠 코리아, 파트너사와 스타트업 발굴

‘그리팅데이’ 진행
스타트업 발전 방향 논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스타트업 지원을 이어가며 파트너사 협업도 확대한다.

벤츠는 11일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스타트업 아우토반’ 파트너 참여 기업 및 프로그램 전략을 발표하는 ‘그리팅데이’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트너사와의 협력 계획 발표, 프로그램 세부 내용 소개,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 전달 등 스타트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벤츠 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와 SK 텔레콤 하형일 코퍼레이트2센터장이 참여한 가운데, 양사간 스타트업 모집 및 선발, 그리고 기술검증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 텔레콤은 스타트업 아우토반 파트너사 역할로, 5G, AI, 메타버스 등 New ICT 분야에서 스타트업과의 공동 사업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 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SK 텔레콤과의 MOU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스타트업 육성 및 협업 기회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임러 그룹이 2016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벤처 캐피탈(VC)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개발 공간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국내에서는 지난달 24일 참가접수를 시작으로 그리팅데이에 이어 셀렉션 데이 등을 통해 12월 엑스포데이에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는 “스타트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수의 국내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코스피 시소게임에 스팩·정치테마株 등 ‘단타’ 삼매경

개인투자자 올 연간 회전율 446% 집계시작 2008년 이후 가장 높아 보유기간도 절반 줄어 2.7개월 스팩·정치테마주 회전율 상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 주요 투자 주체로 자리한 개인투자자의 손바뀜이 잦아지고 있다. 한동안 코스피 지수가 3000~320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틈을 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단기 매매 전략을 취했다. 수급 주체들 사이에서도 매매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유독 개인이 발 빠른 매매에 나서며 한동안 순환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종목별로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정치테마주 등이 회전율 상위에 다수 포진해 투기적 수요가 여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단타 매매, 2008년 금융위기 이상

1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시장 개인투자자의 연간 회전율(일평균거래대금×거래일수/일평균시가총액)은 446%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코스피

〈최근 6년간 투자 주체별 회전율, 보유 기간〉

연도	회전율(%)			보유 기간(개월)		
	개인	기관	외국인	개인	기관	외국인
2016	143	100	57	8.4	12.0	21.1
2017	132	95	59	9.1	12.6	20.3
2018	172	122	71	7.0	9.8	16.9
2019	136	100	66	8.8	12.0	18.2
2020	423	271	110	2.8	4.4	10.9
2021	446	292	121	2.7	4.1	9.9

/유진투자증권, 퀀티와이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던 2011년~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회전율이다. 단타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구간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역시 42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복기하면 2008년 282%, 2009년 370%, 2010년 254%였다. 그때보다도 개인의 단타 매매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올해 회전율은 각각 292%, 외국인 121%로 집계됐다. 기관 역시 개인만큼은 아니지만 과거 금융위기(182~207%) 수준

을 훨씬 웃도는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금융위기 당시 회전율은 109~145%로 그때보다 낮은 상태다.

보유기간도 2009년 이후 가장 짧아졌다. 올해 개인의 보유기간은 2.7개월로 최근 14년 평균(5.2개월)보다 절반에 가까운 2.5개월이 줄었다.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로 한동안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렀음에도 개인이 적극적으로 단타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증시가 오름세를 맞음에도 시장에는 업종, 테마 등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도 관심

이 쏠리는 가운데 당분간 개인을 필두로 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개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이 주도하는 현재 코스피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스팩에 정치테마주 최상위 포진

스팩을 향한 투기적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전율 상위 50개 종목 중 스팩이 10%(5개)를 차지했다. 회전율이 높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만큼 단타 거래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기업가치보다는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이 짙은 종목들이란 얘기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살펴보면 한화에스비아이스팩이 272.58%로 전체 종목 중 가장 높은 회전율을 보였다. 전 거래일(11일)보다 29.89% 급등하며 4845원까지 상승했다. 이 외에 삼성스팩4호(175.84%), 하나머스트7호스팩(41.25%), SK5호스팩(34.11%), 삼성2호스팩(31.33%)도 손바뀜이 잦은 종목으로 조사됐다.

스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을 살펴보면 삼보산업(179.41%)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티플렉스(165.59%), 한솔로지스틱스(160.77%), 네오티스(151.01%), 넥스트아이(131.86%) 순으로 회전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삼보산업과 네오티스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아버지 이 모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인 출신인 이 대표 아버지는 과거 삼보산업의 자회사인 하이드로젠과 위의법정관리를 맡았었고, 넥스트아이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일종의 정치테마주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어급 공모주 청약 등 시장의 관심을 끌 만한 이벤트가 끝나며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느끼자 투기적 수요가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전율이 높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만큼 단타 거래가 집중됐다는 것”이라며 “기업가치보다는 단기 매매를 통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이 짙은 종목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자사주 취득·중간배당 등 주주정책 주목

metro 관심종목

LG유플러스

내재가치 비해 기업가치 저평가 2분기 영업이익 15% 증가 전망

LG유플러스가 차사 아래 최초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섰다. 중간배당도 함께 실시하는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와 이사회는 의의를 거쳐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주 입장에서 자사주 취득은 현금배당 증가 효과와 주당 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탁월한 재무성과 등 자사의 내재가치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과 환원 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간배당도 도입한다. 반기 실현이익에 대한 중간배당으로 주주

〈LG유플러스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유안타증권	2만2000원
한화투자증권·키움증권	2만1000원
메리츠증권	2만원
하나금융투자·현대차증권·SK증권·NH투자증권	1만8000원

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주가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간배당 결의는 서프라이즈”라며 “이번 LG유플러스의 자사주 매입이 단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중간배당 규모가 주당 200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9~10월 모일 예정이었던 배당투자 매수세가 이번에는 6월부터 모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동시에 외국인의 매수강제와 자사주 매입 등이 진행된다는 점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LG유플러스 전 거래일보다 100원(-0.63%) 하락한 1만5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6% 이상 상승하는 등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유안타증권이 2만2000원으로 LG유플러스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올해 1분기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 4168억원, 영업이익 2756억원으로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주력 사업 부문인 무선사업이 매출 1조 4971억원으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오는 2분기에도 우수한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LG유플러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를 전망한다”며 “이동전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성장 때문으로 점차 SKT 대비 상대적 저평가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상장지수상품(ETP)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TOP 10 레버리지 지수는 코스피200 TOP 10 지수 당일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투자전략을 반영한 지수다. 레버리지 효과로 원지수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지만 변동성 확대에 인한 위험도 증가한다.

/송태화 기자

전국 14곳서 7040가구 청약 접수

분양 캘린더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7040가구(주상복합 오피스텔 테라스 하우스 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강남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 인천 용현·학익지구(1블록)도

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1단지’, 경산 비규제 단지 ‘경산 아이파크’ 등 전국 곳곳에 알짜 단지가 속속 등장해 청약 시장이 뜨거워 전망이다.

건본주택은 평촌 트리비아(2417가구), 목동모아엘가그랑데(420가구),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320가구) 등 총 3곳이 개관한다. 당첨자 발표는 ‘e편한 세상 석림 더노블’ 등 16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HDC현산, 경북 ‘경산 아이파크’ 분양

84~142㎡ 중·대형·펜트하우스 경산 입량초·중·도보로 통학 가능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경산시 입량읍 부적리 170 일원에서 ‘경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경산 아이파크’는 84~142㎡로 977가구로 84~101㎡는 중·대형 평면 구성이며 117~142㎡는 펜트하우스로 지어진다. 주택형별(전용면적 기준)로 ▲전용 84㎡A 707가구 ▲84㎡B 156가구 ▲101㎡ 105가구 ▲117㎡P 3가구 ▲131㎡P 1가구 ▲133㎡P 2가구 ▲137㎡AP 1가구 ▲137㎡BP 1가구 ▲142㎡P 1가구 등이다.

입량지구는 총면적 64만여㎡ 규모의 도시개발지구이다. 이 곳에는 공동주택 7500여 가구와 단독주택 5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산 아이파크는 경산 입량초등학교와 입량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입량지구에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다.

교통여건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영



경산 아이파크 조감도.

남대역이 반경 1.5km에 위치해 있으며 영남대역을 이용해 대구 수성구 사월역까지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경산IC와 화랑로, 25번 국도 등 대구 전역을 잇는 도로망 접근성도 용이하다.

경산시는 풍부한 미래비전으로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다. 경산4일반산업단지(2023년 계획예정), 탄소융복합 산업 클러스터(MOU체결) 등 4가지 핵심 미래비전으로 지역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거래소 코스피200 TOP 10 지수 등 2종 발표

한국거래소는 다음날부터 코스피 200지수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TOP 10 지수’와 전략형 지수인 ‘코스피 200 TOP 10 레버리지 지수’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스피200 TOP 10 지수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

목을 선정하여 동일비중으로 산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코스피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대형주를 소그룹으로 압축 구성해 코스피 지수나 관련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된 종목중 구성종목을 선정해

바젤위 등 경고에 비트코인 급락

바젤위 “가상화폐 최고 위험자산” IMF·SEC 등도 경고·우려 잇따라
비트코인 국내거래액 4분의1 토막
김치 프리미엄도 6분의 1로 줄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압호화페 거래소 빙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향한 악재가 계속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5%를 넘어섰던 ‘김치 프리미엄(김프)’도 한 달 전보다 6분의 1로 줄어 들었다. 국내 거래대금 마저도 전월 대비 4분의 1 토막 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규정했다. 바젤위원회 측은 “가상화폐는 은행을 불안정하게 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은 위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부담금을 견딜 수 있는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바젤위원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가상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면서 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선 투자액 만큼의 자본금을 쌓아둬야 한다. 결국 각국은 행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나

설 유인이 감소한 셈이다.

이 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의 비트코인을 범죄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 대해 우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 대상으로 경고하는 등 비트코인을 향한 우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3만5781달러(약 3994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최고점을 달성한 지난 4월 14일 대비 44.83%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의 침체 속에서 국내 가상화폐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같은 시각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100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최고점 대비 49% 가량 내렸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도 전월 대비 크게 줄어 들면서 국내 하락폭은 해외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만 하더라도 김프는 25.4%까지 치솟는 등 지난달 내내 10%대를 유지해 왔으나, 이날 기준으로 3.74%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 하락에 더해 김프 마저도 축소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하락폭은 고점 대비 약 49.5%로 글로벌(44.8%) 하락 폭보다 5%포인트 가량 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 역시 크게 하락했다. 이날 기준 국내 4대 거래소 24시간 거래대금은 5조108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대금이 22조원에 달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을 웃돌았지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디지털화 따른 생산성 양극화 실업엔 생계지원 등 고려해야”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일부 플랫폼사 온라인 장악 땀
생산자·유통업자 손실 가능성

〈주요 노동플랫폼 사례〉

서비스 유형	외국 사례	국내 사례
전문가	Fiverr, Upwork	위시켓, 크몽
심부름, 돌봄대행	RaskRabbit	애니맨
운전	Uber, Lyft	카카오대리
음식배달	Deliveroo	배달의민족
애완견 돌보기	DogVacay	팻닥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업종이나 기업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생계지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3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고, 서비스업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과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생산 시스템이다. 도입·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업무 범위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물류의 제반단계를 실시간 통제·관리하는 스마트 물류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주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무인화·자동화·원격화 등을 적용한 스마트 서비스는 식량, 의료 등 대

면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은 일단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선효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한은은 “생산성 개선효과는 기업여건별·기술유형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무형투자자 인력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개선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빅테크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할 경우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산자·유통업자에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시장구조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은 대체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한은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체 효과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일정 기간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업종에 적응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생산성 제고 및 신규시장 창출이 노동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일정 정도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금융위 등 코로나 장기화 영향 고려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연말까지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취약해진 개인채무자들은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의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 대출이 대상이다. 가계 생계비 차감후 월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가능하다.

단 연체 발생직전부터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

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을 지원받게 되면 6개월 이상 원금 상환 유예(6~12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지난해 12월부터 연체 발생 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또한 캠프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조치도 연장한다. 연체 발생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생명 비대면 강화 ‘마이바디’ 서비스

디지털 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생활·운동·식습관 등 설문 진단

신한생명이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한생명 모바일 스마트창구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바디(My Body)’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바디’ 서비스는 신한생명이 새롭게 출시하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헬스케어 콘텐츠다.

이 서비스로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등 건강설문 결과를 진단한다. 이를 통해 전국 오프라인 키오스크로 체중, 체지방률, 추정골량, 체지방률, 체형관정 등 약 16가지 건강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건강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설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도 주기적으로 체크 가능하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비대면 헬스케



어 콘텐츠인 ‘마이바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개인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신여의도 오피스텔, 투자만 하십시오

월세는 시행·시공사에서 책임보장! / 5년간 80만원

실투자금 6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80만원 / 1억2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160만원

실투자금 = 분양가격에서 대출(70%), 임대보증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전세대 보증금
- 취득세 중과 제외
- 청약통장 무관
- 중도금 무이자
- 주택수 미포함
- 세대 창고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1억미만, 주택수 미포함 리브하임 오피스텔

임대수익 보장제 실시!

(최대 5년, 상세내용은 모델하우스에 문의)

임대수익보장제란?

입주시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보장임대로 지급!**
보장임대로보다 더 낮게 계약시 **차액을 지급**

WHY?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보장** | **공실우려 해소**

- 교통**
 - 5호선 영등포시장역 5분, 15호선 신길역 · 9호선 국회의사당역-약 800m
 - 인천 송도→여의도→남양주 마석,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 B노선(2027년 개통 예정)
 -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안산-시흥-여의도)
 -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강변북로, 2021년 제물포터널 개통(신월IC-여의도)
- 입지**
 - 파크원, IFC몰, 타임스퀘어, 현대 · 신세계 · 롯데 백화점 등 풍요로운 쇼핑
 -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63빌딩, CGV, 롯데시네마, 영등포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 시설
- 환경**
 - 신월동→영등포→여의도 지상 공원화 - 국회대로 지상 테마공원 조성
 -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셋강생태공원, 산책 · 조깅 등 쾌적한 웰빙 주거
- 넘치는 수요**
 - 금융, 증권, 방송국 등 여의도 금융특구의 가치 등
 - 여의도 내 공공기관 221개, 금융기관 194개
 - 영등포구 내 사업체 수 4만 3천여 개, 종사자 36만 8천여 명
 - 문래동 제2 세종문화회관 (2025. 12 개관 예정)
- 수익성** **임대수익보장제란?** (최대 5년)
 - 입주시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보장임대로 지급!
- 안전성**
 - 보장임대로보다 더 낮게 계약시 차액을 지급!
- 환급성**
 - 공실우려없이 안전한 투자를 보장합니다.
 - 갭투자, 고정적 월세 수익, 확실한 시세차익을 원하시는 분

●입금계좌:수협은행 / 1010-2034-8996 ●예금주:무궁화신탁 ●청약금:100만원

여의도 리브하임 오피스텔(복층) 총 154실 전용 19.02㎡ 140실 | 19.48㎡ 14실

시행사 (주)스마트지에이치 시공사 (주)건화종합건설(주) 신탁사 무궁화신탁

모델하우스 1588-0231
사전방문예약/상담문의

르노삼성 SUV, 국내외 총횡무진... 경영정상화 쾌속 질주

XM3 5월에만 4147대 수출
28개 유럽 국가로 판로 확대
QM6 LPG 모델 등 국내 인기몰이
3개월 연속 월 3000대 이상 판매

르노삼성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SUV)의 인기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르노삼성의 중형 SUV QM6가 내수 시장을 이끌고 있다면 2022년식 소형 SUV XM3가 해외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13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지난달 5월 판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출 판매량이다. XM3의 유럽 수출 증가에 따라 5월에만 총 4147대가 수출됐다. XM3가 수출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선적이 이뤄졌다.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022년형 XM3 출시 간담회에서 도미니 시노라 르노삼성 사장은 “올해는 르노삼성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XM3 수출 물량을 제때 공급해야 회사 생존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고 직원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이번에 선보인 XM3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XM3의 성공적인 판매 여부가 향후 르노삼성의 경영 정상화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르노삼성 2022년식 소형 SUV XM3.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نيسان 로그의 위탁 생산이 중단되며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XM3 판매가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XM3는 현재 유럽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XM3는 유럽 전역 출시 이전임에도 1만대 이상 판매됐다.

르노삼성은 이달 말 28개 유럽 국가로 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르노삼성은 XM3의 유럽 적시 공급을 위해 부산공장은 이달부터 2교대로 전환해 풀가동하고 있다.

내수 시장은 QM6가 든든하게 이끌고 있다. QM6는 지난달 총 3081대 판매되며 3개월 연속 월 3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내수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QM6는 국내 유일의 LPG SUV인 QM6 LPe 모델이 총 1902대 판매되며 QM6 전체 판매량의 62%를 차지했다. QM6 LPe는 LPG 차량의 친환경성, 뛰어난 경제성 및 도넛 탱크로 확대된 트렁크 공간 효율성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스테디셀러 모델 반열에 올랐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XM3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을 강화하는 등 국내 젊은 소비자 공략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가장 큰 특징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차 안에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인카페이먼트 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탑재됐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미리 차에서



르노삼성 뉴 QM6.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하면, 카페 도착 후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커피를 받아 볼 수 있다.

르노삼성은 인카페이먼트로 주문 가능한 상품 수와 구매 가능한 상품의 종류도 계속 확대해 갈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호재에도 르노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

르노삼성은 올해 초 수익성 강화를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하는 등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노라 사장은 “르노삼성 노조 파업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걱정거리다”며 “파업으로 인해 르노삼성 이미지가 국내, 더 나아가 유럽시장에서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노라 사장은 올해 르노삼성의 경영 목표를 ▲성공적 인력 구조조정 ▲부산 공장 경쟁력 회복 ▲내수 시장 수익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올해초부터 이미 ‘서바이벌 플랜’을 시행 중”이라며 “르노그룹을 포함해 (개인적으로도) 한국 시장의 저력을 알기 때문에 현재 봉착한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희망퇴직 시작했고 인력 구조조정이 시행됐다”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외곽 아파트로 번지는 풍선효과

도봉구, 재건축 호재에 한 달 새 5000만원 ↑

창동주공17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전용 36㎡ 5억2500만원 매물 등록

서울 외곽지역인 도봉구 집값이 창동 주공17단지 등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창동주공17단지 아파트는 18, 19단지에 이어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대열에 합류했다.

13일 도봉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주공17단지 아파트는 지난 8일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해당 구청에서 진단), 정밀안전진단(민간업체), 적정성검토(공공기관)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창동주공은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총 7개 단지(1~4, 17~19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17단지를 비롯해 18, 19단지 3곳이다. 17단지는 1980가구 규모로 지난 1989년 7월 준공됐다. 주력 평형대는 전용면적 36㎡(1350가구)이다. 현재 18단지와 19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낭보에 호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17단지는 현재 전용 36㎡가 5억25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달 4억7800만원에 팔린 실거래 가격보다 5000만원가량 올랐다.

같은 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창동 상아1차 아파트도 상승세다. 이 아파트는 694가구 규모로 1987년 11월 준공됐다. 상아1차 아파트는 전용 45㎡



서울 도봉구 집값이 창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매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창동주공19단지 아파트. /정연우 기자

가 5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면적형은 올해 초 5억5000만원에 팔린 후 지난달 6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 11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봉은 전주 대비 0.18%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노원(0.33%) ▲동작(0.19%) ▲강동(0.18%) ▲금천(0.18%) ▲도봉(0.18%) ▲종로(0.16%) ▲성북(0.15%) ▲성동(0.14%) 순으로 올랐다.

도봉을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의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규제를 실시한 데 따른 풍선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

기로 합의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부터 입주권을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

이에 투기수요 유입이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재산권 침해, 사업 지연 우려를 비롯해 단지 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풍선효과로 인해 사업 시작단계에 있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혼선으로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거래가 가능한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희토류 中 의존도 심각... 산업안보 위협”

무협 희토류 공급망 현황·시사점
“자체 공급망 구축 등 자원 관리 시급”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희토류의 주요 응용분야 중 하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88.0%에 달해 중국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는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생산이 어려운 데다 소량으로도 소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타원소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예전부터 세계 각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왔다. 희토류는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핵심원료로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지 갖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은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산업안보의 차원에서 희토류 원료 확보·공정기술 개발·비축 및 자원 순환의 전 과정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해 희토류 산업 생태계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희토류의 국내 공급망 구축 사례로 최근 호주 광산기업-국내 스타트업-자체 생산업체-제품수요대기업이 협력해 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에 성공하고 곧 양산 시설 구축에 나서기로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와 협동 연구개발, 국내 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으로 영구자석 생산 전 단계에 걸쳐 자립적인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친환경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공급망의 국내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반도체 수급난에도 車 생산·수출 호조... 내수는 10% ↓

산업부, 5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
현대차 울산 3·4·5공장 등 휴업
현대 13%, 기아 21% 등 생산량 ↑

수출 대수 58%, 수출액 94% 급증
내수 15.2만대 저조 '역기지 효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가 생산을 견인하는 모양새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다만, 내수는 전년도 개별 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지 효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달 자동차 생산은 25만6272대로 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했다.

◆지난달 자동차생산 25만6272대... 10.9% ↑

이는 차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증가를 이끈 결과다. 차반도체 수급난으로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3,4,5공장과 아산공장에서 총 열흘 휴업했고, 기아차 초하리2공장은 이틀, 한국G

<2021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구분	'21.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1.1-5월	전년동기비(%)
생산(대)	256,272	△20.8	10.9	1,488,747	11.9
내수(대)	151,699	△5.8	△10.1	745,145	2.8
국산차(대)	123,813	△8.4	△14.5	615,610	△0.5
수입차(대)	27,886	7.5	15.8	129,535	22.1
수출(대)	150,894	△13.8	57.5	872,064	25.6
수출금액(억불)	34.9	△15.8	93.7	195.6	47.5
부품수출(억불)	18.2	△10.9	182.2	96.5	35.1

M 부평·창원공장은 5월 한달 간 차 생산을 절반 줄였다.

올해 1~4월 기준 세계 10대 차 생산국 중 전년 동기 생산 감소세가 큰 쪽으로 확대됐던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큰 생산 증감률(+52.2%)을 시현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 등에 기인한다.

현대차는 간헐적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이 있었으나, 신차 호조세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차 생산이 12.9% 증가했다. 기아차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판매부진 기저효과와 쏘렌토, 니로, K5 등 주력 모델의 수출확대 등에

로 차 생산이 20.7% 증가했다. 쌍용은 부품공급 재개에 따른 생산 활동 정상화로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했으나, 한국지엠은 공장 감산으로 -39.9%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엔 XM3, QM6 등 주력모델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내수 판매 부진으로 0.1% 소폭 감소했다.

◆수출 15만894대... 대수 57.5% ↑ 금액 93.7% ↑

지난달 자동차 수출 대수는 15만894대로, 전년 동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력모델 판매 호조로 57.5% 증가했다. 특히 수출금액은 93.7% 증가한 3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금액은 북미(14억2600만달러), 유

럽연합(6억6500만달러), 동유럽(4억6900만달러), 중동(2억5100만달러), 아시아(2억2700만달러), 오세아니아(2억2600만달러), 중남미(1억7000만달러), 아프리카(5500만달러) 순이다.

수출액 증가는 친환경차·프리미엄 브랜드(제네시스)·신차(GV70, 쏘렌토 PHEV 등) 수출 호조세와 SUV·CD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비중 확대가 크게 기여했다. 모델별로는 니로(+12.8%), 스포티지(+74.8%)의 판매 증가, GV70(2021.3월~) 쏘렌토 PHEV(2021.5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수 15만1699대... 개소세 역기지효과로 10.1% ↓

지난달 내수 판매는 15만1699대를 기록했다. GV70과 K8 등 신차 효과가 있었고, 친환경차 판매가 56.5% 증가했음에도 전년 동월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지 효과 등으로 10.1%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내수 판매는 역대 5월 중 3위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도 전반적인 공급량 감소로 14.5% 감소한 12만3813대가 판매됐고, 수입차는 독

일계와 일본계 판매 호조로 15.8% 증가한 2만7886대가 팔렸다.

◆친환경차 판매... 내수·수출 모두 증가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한 2만6983대, 수출은 36.5% 증가한 2만7607대로 5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가 월간 역대 최대 판매(9223대)를 기록하며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8%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 금액은 수출 대수보다 더 크게 증가해, 친환경차 수출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비중의 19.0%를 차지한다. 수출금액은 하이브리드차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출금액 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며 수출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부품 수급 차질로 일부 공장이 간헐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 내 소비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82.2% 증가한 18억2000만달러를 달성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규직 채용 기업에 연 최대 900만원 지원

(1인당)

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공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28일부터 접수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추

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9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도 늘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청년이 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

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유사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1

민노총

1만770원 vs 8720원

경영계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이번 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인상안을 들고 나온 민주노총은 시급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약 2000원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초 4개 사업장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가 위원들 간 상견례 차원이었다면 2차 회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돼 3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3차 회의 때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사는 내

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소 1만원 이상을 예견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 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위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안정적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지난해 최초 2.1% 삭감안을 요구했던만큼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만770원과 올해 수준인 8720원 사이 약 2000원의 격차를 놓고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디지털전환·탄소중립에 5년간 1.3조 투입

정부, 국가표준기본계획 심의·의결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발굴했고, 민간 의뢰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

터블(기계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

또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스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편의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작년 곤충 판매액 414억

작년 국내 곤충 판매액은 4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식용곤충이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고, 곤충 관련 업체·농업인도 10% 이상 많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지자체를 통해 올해 3월~5월까지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이 51.6%를 차지해 가장 컸고, 이어 사료용 곤충(22.5%), 학습·애완곤충(10.7%), 기타(15.6%)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년 전 온라인 교육 포문... 대학의 새로운 트렌드 되다

인터뷰 |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행정부총장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이하 서울문화예술대) 행정부총장은 서울문화예술대가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문화예술 특성화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다. 한류 열풍(케이팝, K-pop)이 시작된 이후 '한국어'를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자를 양성하며 한국과 세계를 문화로 잇는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20년 전 문을 연 이 대학의 개교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육효창 행정부총장의 20년 이력은 전공인 한국어 분야를 넘어 사이버대학 발전으로까지 넘나들었다.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20여년 먼저 시작한 온라인 교육이 이제는 대학 교육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사이, 사이버대학은 흔들림 없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2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 덕분이었다. 서울문화예술대는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교를 찾아 온라인 강의 컨설팅 활동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문화예술대가 그간 다져왔던 내실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원격대학 대상 첫 중장기 재정지원사업인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한국어교육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법무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한 것.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21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대행기관'으로도 선정돼 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부문을 담당한다.

육효창 부총장은 "사이버대학은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존재감이 크게 두드러졌지만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온·오프라인 대학의 경계가 무너져 무한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20년간 온라인 교육 내실을 다져온 사이버대학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대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육효창 행정부총장과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대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이버대학은 오히려 온라인 교육 장점이 부각되며 주목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대한민국 사이버대학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년간 축적해온 교육 노하우의 진가를 전 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울문화예술대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선도해온 문화예술 장점이 크게 부각되며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사명감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컨설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손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2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 덕분이다."

-고교 컨설팅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이뤄졌지만, 공교육 현장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컨설팅을 요청해 온 고등학교에서도 EBS 콘텐츠 활용형 수업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 직접 제작하는 소수 선생님도 기본적인 기능 활용에 그친 상태였다. 광주 전남고등학교, 수원 화홍고등학교, 안산 초지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교사들에게 강의 녹화·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제작 방법과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원고·교안 작성 방법 등을 전달했다."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선정돼 '혁신 모형 개발' 한국어교육센터,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법무부장관 단체상 한국어교육학과 재학생 50여개국 400여명... 졸업생 1000여명

-코로나19 이후 학생 수 변화 추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부각되고 고양된 것은 사실이다. 곧바로 입학생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재학생 재등록률(학생이 휴학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진학하는 것)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학기 재학생 재등록률이 83.2%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1학기 재학생 재등록률이 86.6%로 나타나 상승폭이 3.4%포인트에 달했다.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방증이라 날까 생각한다. 향후 사이버대학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이미지 고양에 입학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문화예술대는 특히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특성화가 다져진 대학이다.

"국내 사이버대학이 당초 성인 재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시작했다면, 서울문화예술대는 문화예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며 타 사이버대



학과 다른 색깔을 분명히 하며 성장했다. 우리 대학에는 연극영화학과·토탈미용예술학과·사회체육학과·실용음악학과·건축공학과·모델학과·시각영상디자인학과·실버문화경영학과·한국어교육학과·반려동물학과·조리학과·항공정비학과·항공서비스학과·항공보안학과 등 총 14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문화예술 계열 학과가 많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학과를 개설해 수능을 마친 고3학생이 입학하는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50% 이상 높은 편이다."

-부총장님이 속해 있는 한국어교육학과에 해외 수강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어교육학과는 지난 13년동안 1000

(新)-KOREA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융합 실무인재 양성 교육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원격교육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특성화 기반의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퀵템점프' 모델에는 한류 차원에서 타 대학과 지역사회, 해외 등에 보급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어교육센터가 법무부장관 단체상을 받았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3년 사이버대학 최초로 경기 안산에 오프라인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해 9년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개설 1년 만에 외국인교육 지정기관으로, 그 이듬해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으로도 선정됐다. 한국어교육센터는 안산에 이어 2017년에는 서울에, 2019년에는 진천학습관에도 개설했다. 올해 말 서울 한국어교육센터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법무부장관 단체상은 우리 대학으로서 의미가 크다. 한국어교육센터를 통해서 작게는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는 학생 학습의 장 및 졸업 후 취업의 장으로, 크게는 우리나라 외국인·이주인 교육 산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부이다. 법무부장관 단체상은 그런 포부의 이정표가 아닐까 한다."

-해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문화예술대는 재외동포재단과 2009년 재외동포 교육문화 사업을 위한 MOU를 통해 '재외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과정'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재외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 연수 대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능력협회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제안서 심사 결과 4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실시간 원격강의는 한국능력협회가 각각 맡는다.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은 육효창 부총장이 제7, 8대 회장을 역임한 국제한국어문화학회(INK) 현 임원진이 맡았다. 연수는 재외동포로서 한글 학교에서 수업하는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400여명의 연수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국내외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고 연수생과 공감되는 맞춤형 강의 내용을 구성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인센티브로 온라인 연수 수료자는 차기 초청(대면)연수 재개시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방법은 코리안넷, 스테디코리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창대 수습기자 cdl@metroseoul.co.kr





전북, 담배꽂초로 번진 화재 130건

〈10년간〉

2명 부상, 22억여원 재산 피해
차량 적재함서 발화 가장 많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 커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로 인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전북 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차량 화재는 모두 3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0건이 담배꽂초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불로 2명이 다치고 22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화지점별로 보면 차량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또 차량 실내에 담배꽂초를 방치(11건)해 발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 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4일 완주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전북 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차량 화재는 모두 339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유투이미지. /유투이미지

앞서 지난 1일 적재함에 의자와 탁자, 파지 등을 싣고 전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주변에서 날아온 담배꽂초 불씨가 파지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물자동차는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앞에서 날아온 담배꽂초가 공기를 타고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 소방당국은 전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꽂초 불

법 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꽂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담배꽂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도, 오늘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

어르신 일상 회복 지원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경북도가 14일부터 대부분의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 그동안 도내 경로당은 코로나19로 부분 운영해왔다.

그러나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경북도는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하고자 전면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경시와 김천시, 칠곡군은 고령층 백신 접종 일정과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재개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의 경로당 8146곳 중 73%를 철저한 방역조치와 거리두기 준수 하에 운영하고 경로당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이용자 예

방접종 확인, 방문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11일 경로당 전면 운영재개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을 벌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도내 60~74세 어르신 접종대상자 54만 3797명 중 16만4113명(30.2%),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 접종대상자 24만 5305명 중 17만6781명(1차, 72%), 11만756명(2차, 45%)이 접종을 마쳤다.

도내 500여명으로 구성된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취미 등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도 운영한다.

노인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민센터, 은행 등 전체 5029곳으로 그 중 경로당이 대다수(4561곳, 91%)다.

이번 경로당 전면 운영 재개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비치, 경로당 행복도우미들을 통한 어르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곡성군, 수해 예방 예산 450억 지원 건의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지난해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이 수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4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곡성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섬진강 관련 2가지 사업에 예산 4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곡성군은 우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수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섬진강변 도로 등이 침수돼 마을

등이 고립될 경우 교량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호곡교 연결교량 가설공사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익산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남원시

상수도 시설물 일제 점검

전북 남원시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상수도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점검반을 구성, 배수지 계통별로 오는 30일까지 상수도시설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정수장 1개소, 배수지 9개소, 가압장 42개소, 교량의 관매달기 상수관 등이다.

/전북=김태수 기자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 전시회

전남도, 20년 간의 기록

전남도는 6·15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기념해 14일부터 18일까지 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평화통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00년 6월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선언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성사된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전남도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 20년 간의 기록 등을 포함해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40여 점의 사진도 함께 전시한다.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가상현실(VR) 체험행사에선 북한의 평양 시내 모습과 만수대, 옥류관, 대동강 등 북한 지역 명소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실제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물품과 북한 애니메이션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시간마다 관람객 10여 명을 대상으로 남북통일과 북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규용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전남은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며 “이번 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민 자긍심을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들어 도와 시·군,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하고 대북 의약품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2월 호남권 통일센터가 완공되면 통일 분야 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남북협력사업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가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광주시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석면, 치명적 질병 유발 발암물질

광주시가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전역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모두 1만6000여 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이 1만1000여 동, 비율로는 68%에 이른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본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눠 이뤄진다. 기본조사는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제내용 등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는 건축물 실제 용도, 미등재 건축물 건축면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될 예정이며, 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와 석

면해체加里 등록제 운영, 석면 피해구제 급여 사업 등도 함께 진행중이다.

우선, 노후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10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6동이 대상이며 슬레이트철거는 물론 운반, 처리, 지붕개량까지 한꺼번에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지원가며, 한 동 철거 시 전액 지원되고 개량일 경우 최대 1000만원 안에서 지원된다. 일반가구 경우에는 철거 시 344만원, 지붕 개량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2012년부터 54억 원을 투입해 2950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시는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 손상 정도를 자체조사하도록 지도감독도 이어오고 있다.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의 면적에 사용됐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회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함유 인식표를 기재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석면건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도시락 시키신 분~?” GS25, 상품 주문하면 로봇이 간다

GS리테일, 로봇 배달서비스 확대
강서구 이어 역삼 GS타워에 도입
실내 배달건수 일평균 22건 달해
점포 배달서비스 매출 50% 신장

편의점 상품을 인공지능(AI)로봇이 배달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스마트폰으로 주문 받은 상품을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5월 역삼동 소재의 GS타워에 위치한 GS25 점포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있는 GS25 점포를 통해 업계 최초로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두 번째 사례로, GS25는 올해 고층 오피스 빌딩, 병원, 오피스텔 내 GS25 점포로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해 갈 계획이다.



GS리테일 직원이 GS25 로봇 배달 서비스로 주문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 /GS리테일

피스 빌딩, 병원, 오피스텔 내 GS25 점포로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해 갈 계획이다.

로봇 배달 서비스는 서비스 도입 점포의 매출을 큰 폭 상승시키는 등 구체

적 성과를 이끌어 내며 확산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확대 도입한 GS타워 내 GS25 점포의 경우 5월 4일~6월 12일(40일간)까지 로봇이 수행

한 실내 배달 건수가 하루 평균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기간 동안 누적 880건을 기록한 로봇 배달 서비스 효과에 힘입어 해당 점포의 배달 서비스 매출은 직전 월 같은 기간 대비 50.1% 신장했다.

로봇 배달 서비스의 이용은 오전 10~11시, 오후 3시~4시에 각각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전 시간에는 ▲도시락 ▲빵 ▲샐러드 등 식사대용 먹거리 주문이 주를 이룬 반면 오후 시간에는 ▲커피 ▲스낵 ▲젤리 등 식곤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간식류의 주문이 가장 많아 주문 베스트 상품의 종류는 시간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최종화 GS25 배달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자 큰 호응을 끌며 이용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편의점 로봇 배달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해 일상 속에서 로봇을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쇼핑 환경을 고객께 제공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봇 배달 서비스는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고객이 GS25 상품을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객이 완료되면 점포 근무자가 로봇에 상품을 담고 고객 연락처와 목적지를 입력한다. 이후 로봇은 자율 주행으로 배달을 시작하고 무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스스로 탑승 후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로봇은 고객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품 도착을 안내하고 상품 수령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문자로 발송한다. 고객은 로봇 모니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상품을 최종 수령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해외여행 기대감... 기내식 감성 도시락 인기

이마트24, 판매량 20~30%p ↑
‘프라하편’ 카테고리 베스트 3위
‘뉴욕편’ 샌드위치 카테고리 4위

백신 접종 확대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내식 감성 도시락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마트24가 지난 5월 1일 선보인 기내식 도시락 2종(기내식 감성 뉴욕편, 기내식 감성 프라하편)의 주차 별 매출을 확인한 결과, 5월 2주~4주차에는 전주 대비 10~20% 증가율을 보이다가 6월 1주차에는 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5월과 비교하면 20~30%p나

높은 수치다.

특히 6월 들어 ‘기내식 감성 프라하편’은 정찬도시락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3위에, ‘기내식 감성 뉴욕편’은 샌드위치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프라하편’은 간장비빔밥, 콩나물 양념 갈비살, 야채볶음과 함께 모닝빵, 버터, 튜브 고추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편’은 뉴욕에서 즐겨먹는 에그 베네딕트와 함께 푸시리 샐러드, 단호박, 존슨빌 소시지, 발사믹 소스로 구성되었다. 가격은 각 5500원이다.

기내식 콘셉트 도시락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이마트24는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11일 선보인 ‘기내식 감성 한국편’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먹어봤을만한 기내식 비빔밥을 콘셉트로 한 도시락이다. 밥 위에 둔육볶음, 당근, 콩나물, 호박, 시금치, 계란지단, 버섯이 올려져 있으며, 기내식에서 빠질 수 없는 튜브 고추장과 참기름이 동봉되어 있다.

또한, 기내식 디저트로 흔히 볼 수 있는 미니약과와 빵피클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은 5000원이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텍사스 로드하우스’ 송도점 오픈

프리미엄아울렛 3층 식당가에 매장

현대백화점은 오는 14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3층 식당가에 스테이크 전문점 ‘텍사스 로드하우스’ 송도점을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SPACE1)에 국내 1호점을 선보인 데 이어 두번째 매장이자



텍사스 로드하우스 스페이스원점 내부전경 /현대백화점그룹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미국 1위(매출 기준)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199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첫 매장을 연 뒤 현재 미국·멕시코·대만 등 10개국에 6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에서는 덩어리 상채의 원육을 냉장 시설 ‘미트룸’에 전시해 보여준다. 여기에 고객이 원하는 경우 직접 원육을 골라 주문할 수 있도록해 일반 스테이크 전문점과 차별화했다. 식전빵으로 기본 제공되는 ‘텍사스롤’ 또한 매일 매장에서 즉석 반죽해 구워내기 때문에 신선하다. /신원선 기자

텍사스 로드하우스 송도점은 482㎡(약 146평) 규모로, 스테이크·치킨·립·버거·샐러드 등 70여 종의 메뉴를 선보인다. 주력 메뉴인 스테이크는 서로인(등심), 필레(안심), 립아이(꽃등심) 등 기본 부위뿐 아니라 뼈가 붙어있는 꽃등심 ‘본인 립아이’, 알파벳 T자 모양의 뼈 양 옆에 안심과 채끝등심이 각각 붙어 있는 ‘포터하우스 티본’ 등 특수 부위까지 다양하다. /신원선 기자

꽃게랑, 러시아 스낵 ‘끄랩칩스’ 변신

빙그레, 남궁민 모델 티저 방영
‘황당한 내용’, 소비자재 재미

빙그레는 꽃게랑이 ‘끄랩칩스’라는 러시아 스낵의 모습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꽃게랑은 지난해 패션 브랜드 ‘코트-게랑(Cotes Guerang)’을 통해 재미를 선사한 바 있다.

빙그레는 배우 남궁민을 모델로 꽃게랑 영상 광고 스토리를 구성, 지난 6월 4일 티저 광고를 방영했다.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굴지의 기업 ‘게르과자 인터내셔널’의 대표제품, 러시아의 ‘끄랩칩스’가 한국에 상륙했다. ‘게르과자 인터내셔널’의 대표 ‘게르과자 마시코프’는 K-푸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을 먼저 공략하면 세계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게맛 스낵인 ‘끄랩칩스’는 한국에 진출하자마자 밀수혐의로 체포되는데 모두가 ‘끄랩칩스’를 ‘꽃게랑’이라 부르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다소 황당한 내용의 영상광고는 꽃게랑의 새롭고 기발한 모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실제로 꽃게랑은 ‘끄랩칩스’란 제품명으로 러시아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90년대 초반 구 소련 시절 개혁 개방노선에 따라 부산항에 입항한 선원들이 연해주를 통해 본국으로 꽃게랑을 가지고 가면서 꽃게랑 수출이 시작되었다. 빙그레는 이번에 광고 뿐만 아니라 실제 러시아어가 인쇄된 ‘끄랩칩스’ 패키지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오비 필굿-발명! 쓰레기겔 ‘부자되라굿’ 카드 선배

오비맥주 필굿이 인기 유튜브 ‘발명! 쓰레기겔’과 제작한 ‘부자되라굿’ 게임 카드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굿즈는 필굿이 신개념 굿즈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진행한 ‘필굿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유튜브 ‘발명! 쓰레기겔’은 가장 참신한 ‘필-굿즈’를 뽑는 소비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해당 굿즈 제작을 다룬 영상은 90만뷰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색 굿즈 ‘부자되라굿’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카드게임이다. 필굿의 공식 캐릭터 필구를 활용한 이번 굿즈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척하기’ 등 부자를 체험하는 다양한 미션카드들로 구성됐다. ‘부자되라굿’은 오비맥주의 공식 굿즈 사이트 ‘치얼스앤굿즈’에서 7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조효정 기자



오늘부터 ‘SSG리빙페이어’... 최대 52% ↓

SSG닷컴, 시디지 최대 39% 할인

SSG닷컴은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SSG 리빙페이어’를 열고 신세계물과 신세계백화점몰에서 판매 중인 리빙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52%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대표 상품으로 ‘시디즈’ 브랜드를 최대 39%까지 할인하고, 오는 14일 단 하루 해당 브랜드 전 품목을 최저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까사미야’, ‘한샘’, ‘시몬스’, ‘에몬스’, ‘일룸’, ‘리바트’ 등 다양한 가구 브랜드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주방용품은 고무장갑,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 등을 1+1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다. ‘휘슬러 컴포트프로 압력밥솥 콤비세트’는 43% 할인한 44만9000원에, ‘르크루제 소르베 밥&곡긱 세트’를

52% 할인한 3만5100원에 판매한다. ‘3M’ 행사 상품은 2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3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을 예누리한다.

침구에서는 시어써커, 린넨, 인견 등 시원한 소재로 만든 이불을 제안한다. 텀퍼 오리지날 베게도 30% 할인한 10만8500원에 판매한다.

또한, SSG닷컴 단독으로 지난 5월 국내 온라인몰 최초로 입점한 ‘프리츠한센’ 인기 상품 ‘이케바나 화병’을 5% 할인한 14만2500원에 준비했다. 오는 17일 밤 10시부터는 ‘차라홈’ S/S 시즌오프 최대 40%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SSG닷컴은 상품가격 할인 외에도 쿠폰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할인 한도를 높인 리빙 카테고리 전용 쿠폰 2종을 발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패션 플랫폼, 웹콘텐츠 더해 새 단장

**무신사 스냅오픈... 팔로우·태그적용
에이블리 Si기반 맞춤추천 강화
지그재그 16개 유형 개인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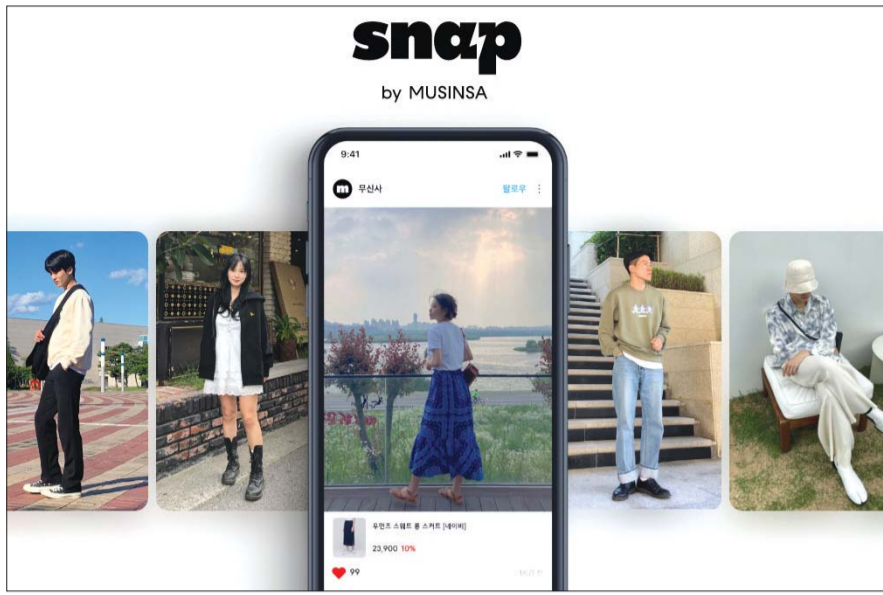
패션 플랫폼들이 단순한 패션 모음앱을 넘어 입점 업체들을 피드(게시물)처럼 볼 수 있게 하거나 보유 콘텐츠를 축적하는 등 SNS화되고 있다.

최근 패션 플랫폼들은 대표 SNS 인스타그램과 같이 입점 업체를 향한 좋아요, 팔로우 기능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까지 소화하며 고객들을 플랫폼에 자주, 오래 머물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는 지난 11일 패션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피드화한 '무신사 스냅'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무신사 스냅은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던 기존 서비스를 피드형으로 새롭게 개편해 여러가지 패션 스냅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고, '좋아요'로 관심을 표현하거나 '해시태그(#)'로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스냅 속 착장 상품에 관한 정보를 게시물 하



무신사 스냅 서비스 이미지.

/무신사

단의 무신사 스토어와 연결해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점도 눈에 띈다.

무신사는 이에 더해 더 많은 고객이 스냅 속 입점 브랜드 상품을 만날 수 있도록 매주 '주간 베스트 스냅'을 선정해 소개하고, 무신사 에디터가 트렌드에 맞춰 엄선한 큐레이션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스냅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집단인 '무신사 크루'들은 스냅에서 패션 콘텐츠를 공유하고 무신사TV, 무신사 매거진 등 다양한 콘텐츠 채널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김현수 무신사 미디어부장은 "무신사 스냅은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패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점 브랜드는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패션 전문 플랫폼 1위 에이블리는 '2000만의 AI 쇼핑메이트'라고 홍보할 정도로 자량거린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강화했다.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패션 취향을 짚어내고, 검색 기록을 통해 데이터를 확장한 다음 취향에 적합한 상

품 및 업체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각의 업체에 역시 '#오피스룩', '#심플베이직'과 같은 추천 태그가 붙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하트를 눌러 마음에 드는 업체의 상품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업체별 상품의 제품명 아래에는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한 사람 중 몇 %가 만족했는지 표기해놓았다. 해당 상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어떤지, 상품의 어떤 점이 선호를 받고 있는지 자신의 취향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했다.

에이블리는 뿐만 아니라 '왓츠온: 키워드로 말해요', '핑동! 에이블리의 리뷰레터', '스타프 쇼핑백 엿보기' 등의 지면 또는 메일 형태의 콘텐츠를 발행해 소비자들의 옷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을 넓혀주는 한편, 에이블리 스태프와 가입자들의 거리를 좁히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이러한 전략들로 2030 세대 신규 유입이 증가하고 패션 플랫폼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위를 기록해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한 플랫폼이 됐다.

지난 2019년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앱에 오른 지그재그도 동대문 기반 여성 패션 쇼핑몰 모아보기앱에서 시작해 고객들이 필터를 걸고 편하게

자기 취향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삼고 있다.

지그재그의 핵심이 '연결'인 만큼 고객의 상품 클릭, 상품찜(상품단위), 쇼핑물 즐겨찾기(쇼핑물 단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6개의 유형으로 구성해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그재그는 최근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카카오톡 안의 다양한 지면·도구를 활용해 지그재그가 가진 패션 콘텐츠를 카톡 이용자에게 선보여 지그재그로의 유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외에도 소비자와 업체와의 연결, 업체 간 비교, 관심 업체의 잦은 노출 및 콘텐츠 어필 등을 통해 소비자와 패션의 거리를 줄이고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편리성을 높인 패션 플랫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패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럭셔리·남성전문·아동·편딩·4050세대 등 독특한 점을 지닌 신규 플랫폼의 출시와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신생 패션 플랫폼까지 가세해 앱 인터페이스 설계와 추천 서비스, 콘텐츠 전쟁이 격화되며 기성 패션 플랫폼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 등에도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콜라겐·세라마이드, 복합섭취시 피부 보습 효과”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4주간 21명 대상 피부변화 분석
피부수분량 평균 32.38% 증가**



매일유업 중앙연구소가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복합 섭취가 피부의 수분 및 탄력 변화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11일 "두 성분이 피부 변화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며 "콜라겐과 세라마이드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피부 보습과 탄력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게재된 관련 논문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

쉬콜라겐 복합 섭취에 의한 피부보습 시너지 효과'는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개별적으로 섭취할 때보다 두 성분을 복합 섭취할 경우 피부 보습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매일유업 중앙연구소와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 임상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논문은 4주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인체적용시험에서는 만 39~50세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 복합 섭취 후 피

부수분량, 경피수분손실량, 피부탄력, 진피치밀도 변화를 측정했다.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함께 섭취한 경우 피부 수분량은 평균 32.38% 증가, 경피수분손실량은 평균 13.89% 감소해 모든 실험군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각질층에서 표피 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각질층의 세라마이드가 감소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돼 수분손실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우유에서 추출한 밀크세라마이드는 피부 표피의 라멜라 구조(벽돌 구조)의 기본 구성 요소 '스핑고미엘린' 성분이 풍부하고, 체내 흡수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은미 기자

더페이스샵, 바다 레저 맞춤형 선크림 출시

리프세이프 선 기획세트

더페이스샵이 늘어나는 액티비티 인구와 여름 휴가 시즌에 대비해 바다 레저 맞춤형 선크림 '내추럴 선 에코 슈퍼 액티브 리프세이프 선 기획세트(사진)'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추럴 선 에코 슈퍼 액티브 리프세이프 선'은 SPF50+ PA++++의 자외선 차단력과 워터프루프 기능을 부드럽고 촉촉한 제형에 담은 선크림으로, 서핑이나 수영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때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위해 진정 효과를 갖춘 원료인 자작나무수액과 루이보스잎 추출물을 함유했다.



아니라 바다까지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선케어 제품이다.

출시 기념으로 선보이는 기획세트는 제품 상자를 재사용 종이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인쇄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 후 버려지는 종이를 이면지로 활용해 세트 상자를 제작,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 했다.

/원은미 기자

자주, 브라렛·사각팬티 등 여성속옷 매출 ↑

편안한 착용 우선 고려... 봉제 최소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에서 와이어가 없는 브라렛, 브라캐미슬과 여성용 사각 팬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주는 13일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브라렛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여성용 사각팬티 매출은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용 트렁크 팬티는 자주 여성 팬티 전 품목 중 가장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용 사각 드로즈인 '보이쇼츠'는 올해 처음으로 삼각팬티 판매량을 넘어섰다.

이들 제품은 좋은 맵시보다는 편안한 착용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작됐으며 유기농 소재, 천연 코튼 등을 사용했다. 봉제를 최소화해 속옷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편안한 디자인의 여성속옷이 인기를 끌자 자주는 올 여름을 겨냥해 기존 제품의 소재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 새롭게 출시했다.

새로 출시된 브라렛과 브라캐미슬은 기능성 천연 소재 텐셀을 적용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사각팬티는 자극이 없는 유기농 소재로 제작됐다.

/원은미 기자

강스템바이오텍·와이어트 줄기세포배양액 활용 헤어상품 개발 추진

하반기에 제품 상용화 전망

강스템바이오텍은 닥터포헤어와 카카오페이로 유명한 카카오통합체 와이어트와 공동사업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와이어트의 닥터포헤어 브랜드 줄기세포배양액 라인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닥터포헤어는 글로벌 두피관리 센터와 다양한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두피·헤어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통합체 와이어트의 브랜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고의 기술력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서 만든 줄기세포 배양액은 배양과정 중 세포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탄력향상, 수분공급, 항노화 등에 효과적이며, 그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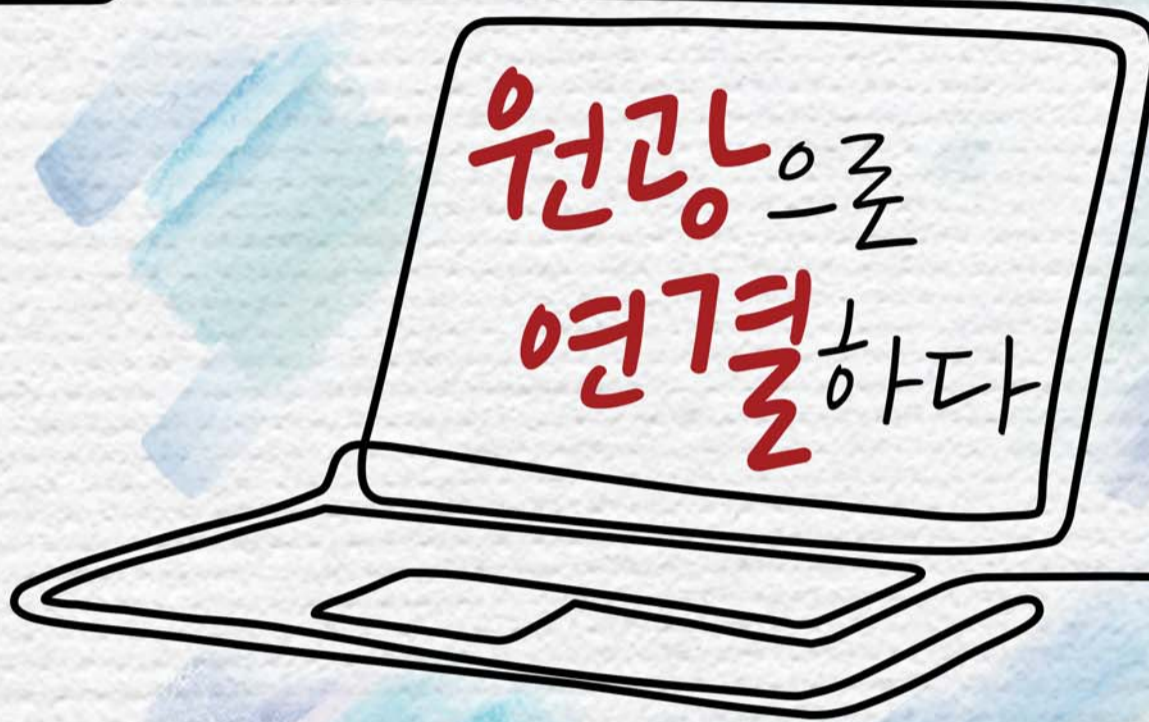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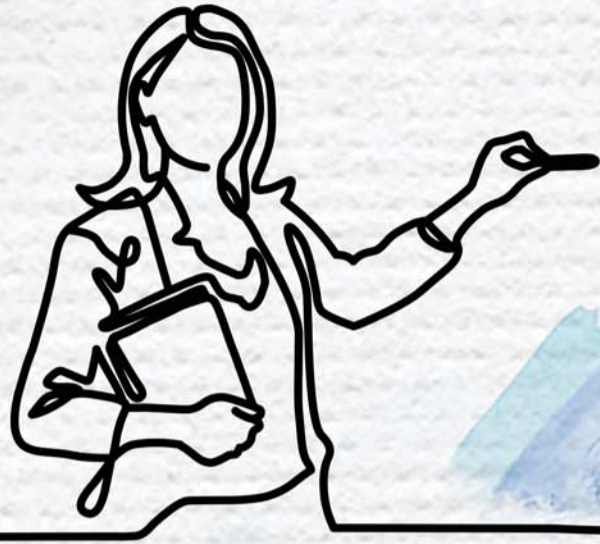
인정받아 이를 반영한 화장품이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닥터포헤어와 카카오페이로 이미 헤어케어 시장에서 감성을 가진 와이어트와 금번 계약을 통해 당사는 줄기세포배양액을 활용한 헤어케어 시장에 진출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상용화 및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 미래로 행복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로 |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모집기간 2021.6.1(화) ~ 2021.7.13(화)

모집학과

-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 한방미용예술학과 / 요가명상학과 / 웰니스문화관광학과
-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 한국복식과학학과 /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 동양학과 /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 원불교학과
-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학과 / 언어치료학과 / 경찰학과 /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 특징점

- ☑ 2007 교육부 역량평가 종합우수대학
- ☑ 2013 교육부 역량평가 전체영역 최고등급
- ☑ 2016 교육부 이러닝 지원사업자 선정
라오스 국립대학교 컨설팅 진행
- ☑ 매년 입학생 98% 이상 장학 수혜
- ☑ 사이버대학교 최대 지역 캠퍼스 보유

🏠 **홈페이지** www.wdu.ac.kr

☎ **입학문의** 1588-2854



NH농협생명, 자매결연마을서 영농철 일손 돕기

NH농협생명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로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전용범 경영기획부문 부사장과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범 NH농협생명 경영기획부문 부사장이 농가 일을 돕고 있다. /NH농협생명



롯데백 문화센터, 국가대표 식품명인 뜬다

롯데백화점은 다양한 테마의 소규모 클래스 중심으로 랜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평소 쿠킹 클래스나 강좌를 많이 진행하지 않는 요리 명인들의 특별한 클래스를 기획, 랜선으로 그 비법을 전수하고 레시피에 활용된 상품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사가 랜선으로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교보증권 '줄넘기 챌린지' 기부금 기아대책 전달

교보증권은 '가족과 함께하는 줄넘기 10만 챌린지'로 적립된 기부금을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에 전달했다. 임직원 및 가족이 줄넘기 100회당 1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10만회를 목표로 진행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왼쪽)가 정규상 기아대책 본부장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교보증권



'개원 1주년' 일산 차병원, 병원의 비대면 선도

차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은 지난 11일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산차병원은 개원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병원계 최초 온라인 개원식과 랜선 산모대학, 비대면 새해 첫 아기 출생 등 병원의 비대면 문화를 개척했다. /일산 차병원



CU, '실종·학대 예방 캠페인' 몽골까지 확장

CU가 실종·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CU'를 몽골에서도 추진한다. 몽골에서 CU를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사 센트럴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CU를 실종아동의 임시보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아이CU' 캠페인을 시작했다. /CU



김 보 락 변호사의 노동법을 읽기

분쟁이 되는 많은 징계 사건에서,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징계처분 통보서 등에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여러 비위행위가 문제되거나 하나의 비위행위가 규정상 여러 징계사유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해 소개하려고 한다(대법원 2020다2707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징계사유로, A 방송사의 카메라기자가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4등급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블랙리스트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 등이 문제됐다. 특히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원심에서는 위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해석

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돼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해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즉 카메라기자의 위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도,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A방송사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LG전자, 올해도 스페인에 나무 400만 그루 심는다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일환 스페인 환경 보호활동 확대

LG전자가 스페인에 나무 400만 그루를 심으며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에도 스페인에 나무 심기 활동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시작한 활동으로, 장기적으로 스페인 국민 1명당 1그루, 연간 4700만 그루 식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250만그루를 심었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참가자들 모습. /LG전자

며, 올해에는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스페인 공공기관과 CO2 레볼루션, 까르푸 등 10여개 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앞서 LG전자 이베리아법인은 2019년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인 인근에 스마트 그린 흡수림과 스마트 그린 가든을 구축했다. 스마트 그린 흡수림에 있는 태양광 모

듈, 친환경 보일러,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인다. 스마트 그린 가든에 있는 나무 1000 그루는 매년 2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LG전자는 '고객의 건강한 삶', '더 나은 사회 구현', '제품의 환경영향 저감' 등을 ESG 경영의 지향점으로 두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LG전자 유럽지역대표 이천국 전무는 "스페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스페인의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사회공헌활동 영상, 美 '퀘스타 어워즈' 동상

'보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영상이 '퀘스타 어워즈 2021'의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퀘스타 어워즈를 수상한 영상은 '보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을 위해'라는 제목의 사회공헌활동 영상이었

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한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머콕사 주관의 '퀘스타 어워즈'는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영상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약 200개 글로벌 기업에서 홍보영상을 출품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금상과 은상이 없는 동상

을 수상하며 독창성과 메시지 전달 능력, 디자인 등을 인정받았다.

수상 영상에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구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노력이 담겨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케이션 제작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룹의 노력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퀘스타 어워즈 2021'



현대차그룹 사회공헌활동 영상 '퀘스타 어워즈 2021' 수상. /양성운 기자 ysw@

수상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처음 제작한 사회공헌활동 영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두번째 쾌거다.

코오롱스포츠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후원

코오롱스포츠가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 군산시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제12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후원한다.

코오롱스포츠는 이번 대회의 메인

후원사로, 대회 진행 비용 일부분 아니라 입상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선수복 등 진행 물품 일체를 제공하는데 코오롱스포츠의 상록수를 형상화한 한글 '솟살'을 디자인 포인트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원은미기자

인사

◆뉴시스 > 승진 △사진영상부장 박영태(부장대우) △국제부 권성근(차장) > 전보 △산업부장 박상권(부장) △산업2부장 김경원(부장대우) △워싱턴 특파원 김남영 기자(내정) > 입사 > 정처부장 남상훈(부장)

부음

▲안진이씨 별세, 백중문(전 MBC 부사장)씨 부인상, 백수정(효성 커뮤니케이션 실대리)·백동하(현대모터에버 사원)씨 모친상, 김삼민씨 장모상 = 12일 오후 10시, 일산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5호실, 발인 14일 오후 1시30분. 031-900-0444

천안함에 대한 모독, 이제 그만하라



문형철 기자
국방 칼럼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던진 '천안함 함장이 당시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망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지동설과 진화론을 거부하던 맹신론자들처럼 천안함 음모론자들에게 사실과 과학을 근거로 한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된 11년 전보다 이들의 감정적 선동과 폭력은 더 깊어지고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바다 위에 섰던 젊은이들만, 양쪽으로 나뉜 국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한 시사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 그분도 승진했다"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 함장은 앞길에 창창하던 해군 장교였지만, 천안함 폭침으로 한직으로 물러났다. '승진'이 아닌 '진급'도 전역하던 당일 대령으로 명예 진급한 것이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냉혹한 법조인이란 그랬을까. 타인의 아픔을 쉽게 내뱉었다.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은 자신도 육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저본적은 없다.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자 또한 지휘관 직을 여러차례 경험해 봤다. 훌륭한 지휘관들의 경우, 전역을 한 뒤로도 부하였던 간부와 병들이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다. 최 함장 또한 다르지 않았다. 부하들은 굳건하게 그를 따르고 있다. 생존 장병들은 하나같이 "우리 함장님이다. 우리가 살아서 생환하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었다. 이런 지휘관에게 책임을 논할 수 있겠다.

조 전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표했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모멸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됐다. 친여당 성향인 데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여당은 언제쯤 돼야 기 쯤 펴고 여당 노릇 좀 할래나"라며 최 함장에게 "당장 군법회의로 보내야 할 놈을 진급시켜서 무사 전역시켜 놓으니 이따위로 기고만장이지"라고

모멸적 발언을 퍼부었다.

최 함장이 고소를 언급하자 그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최 함장을 향한 모멸적 발언은 계속 이어져 갔다.

최 함장이 고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서울 휘문고교의 한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내대고 XX이야"라고 모멸의 바톤을 이어갔다.

천안함 생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건은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부보다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전우들에게 한 자복을 입히고 정치적 이미지로 활용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진상규명위는 북한소행으로 결론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내렸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문제를 끝내야 할 국방부가 군말없이 진상규명위를 따랐다는 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 천안함 전우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 만큼 아픔을 지닌 대한민국 시민이다. 모든 희생자들의 상처에 진영간의 불화살을 박아버리는 야만적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captinm@metroseoul.co.kr

부동산 투기와 칼바람



기지 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칼바람' 정계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떠들썩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총 12명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투기 사태는 지난 4월 재보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석 달 여 만에 다시 부동산 투기 건이 화제가 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당 초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당 안팎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과제로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것(live)'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세력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했다. 이들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 등의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마저 부동산 투기 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겼다. 이제는 투기 논란으로 바닥을 친 정책 신뢰를 공급대책 강행으로 만회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점에 대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 대표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계에 불고 있는 부동산 칼바람이 어디까지 번질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공정하지 않은, 불평등한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공급확대 정책은 물론 투기 사태 연루자를 심판하기 바란다.

/ywj964@

오늘의 운세 6월 14일 (음 5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48년생 마지막 수비자가 되는 히든카드가 있다. 60년생 돈을 벌기위한 방책으로 영업장 대청소부터. 72년생 뒤숭숭하면 잠자는 머리방향 바꿔보라. 84년생 어려운 계약이 쉽사리 성사되는 기쁨이.



37년생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 49년생 올바른 처신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61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흠직한 결과. 73년생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니 주의해야. 85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38년생 수업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 5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62년생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해가 되니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74년생 인연에서 상황의 반전이 생김. 8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39년생 집안분위기가 소 각각 말 각각이다. 51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 63년생 승진 공부하는 책상을 서북향으로 배치해보라. 75년생 말뚝에 굴러도 이승이 좋으니 힘내라. 87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노력.



40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5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생각. 64년생 몸이 피곤한 날이나 재물 운이 있다. 76년생 욕심을 부리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8년생 만물이 생동하니 나도 행동을 해야 한다.



41년생 인생사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53년생 여우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65년생 조인도 들을 사람에게 해가 빛이 난다. 77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89년생 막걸리 거르려다 지게미도 못 건진다.



42년생 뛰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 있다. 54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모두가 힘들다. 66년생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을 새겨들여라. 78년생 여름이 가면 부체는 제 역할이 다한 것. 90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음이다.



43년생 누워서 떡 먹다가 결국 체한다. 55년생 친척의 초대로 즐거운 날. 67년생 아작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79년생 자녀가 학습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 9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순서대로 차분히 행동하라.



44년생 내 땅 까마귀는 검어도 반값다. 56년생 삶은 평화로우나 마음은 지루하다. 68년생 도움을 줬던 친구가 은혜를 갚으러 오니 보람을 느낀다. 8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 버려두자. 9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인데.



45년생 날 도깨비가 복을 부른다. 57년생 아직은 꿈을 포기하지 마라. 69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 써 보자. 81년생 두부 먹다가 이 빠지지 바빠도 운전 주의. 93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 분발해야 할 것.



46년생 믿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58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70년생 가는 사람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82년생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하라. 94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간다.



47년생 소문난 재물은 아니지만 오전부터 황재수. 59년생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 71년생 고액과외보다 자녀와 같이 공부하는 자세를. 83년생 굽이 높은 신발은 자제해야. 95년생 아침부터 냉수 먹고 이슈는 것처럼 실속 없다.



김상회의四季 증시를 보는 눈

지난해 최고의 화제 중 하나는 주식이다. 사람들 입에서 주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 주식이 화제를 몰고 오면서 누구나 주식투자를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필자 지인 중에도 코스닥은 뭐고 나스닥은 뭐냐 묻는다. 증권시장과 관련된 큰 지식은 없지만 필자가 과거 금융인으로 있었을 때 조금 알던 상식으로 설명해 주곤 했다.

우리나라 증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둘로 나뉜다. 코스피는 우리나라 제1 증권시장인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증시는 코스피를 의미한다. 코스피에는 한국의 대표 우량기업들이 대부분 속해있다. 1980년 1월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보고 지수를 계산하는데 올해 초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즉 주식 총액은 2200조 정도이다.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코스피보다 수월하게 증시에 등록할 수 있게 한 증권시장이다. 기술이 뛰어나거나 성장성이 좋으면 등록할 수 있다. 코스닥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에서 따온 것이다.

미국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을 이해하면 큰 틀이 보인다. 다우지수는 뉴욕 증시의 평균주가를 말한다. 뉴욕 증시에 등록된 우량기업 30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이다. 다우지수는 세계의 모든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나스닥은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속해있는 시장이다. 벤처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대표성이 워낙 대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등의 거대한 기업들이 나스닥에 있다. 주식시장이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식을 모르고 살기 힘든 시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린다**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늘려주세요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3	7		
			9		
3		5	4		8
		2	9	1	3
			7		
1	2				6 5
		3			1
6	7			2	3

3	7				4
6					9
			2		
			5 3		
			1	2 9 5	
7			6 1		
		4			2
	1			5	3

정답

8	4	7	6	1	8	2	9	9
2	6	1	9	2	9	8	4	8
9	9	8	8	4	2	6	2	1
8	1	4	9	2	2	9	6	8
9	2	8	1	9	6	2	8	4
6	2	9	8	8	4	9	1	2
2	8	2	4	9	9	1	8	6
4	8	9	2	6	1	8	2	9
1	9	6	2	8	8	4	9	2

2	8	6	9	8	4	9	1	2
2	9	9	2	8	1	4	6	8
8	4	1	9	2	6	8	9	2
9	6	2	8	1	9	2	8	4
4	1	9	8	9	2	8	2	6
8	2	8	4	6	2	1	9	9
9	9	2	2	4	8	6	8	1
6	8	8	1	2	9	2	4	9
1	2	4	6	9	8	9	2	8

과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817호	

뉴노멀 물류 키워드 #e-풀필먼트 #ラスト마일 #디지털화

CJ대한통운, 물류산업 트렌드 제시
곤지암 메가허브에 e-풀필먼트
밤 12시 주문, 다음날 배송 가능
새벽·당일·즉시·지정일 배송 등
소비자 'ラスト마일' 수요 다변화



CJ대한통운 e-풀필먼트센터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 AI 로봇 디팔레타이저.

물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노멀 시대 물류의 키워드는 ▲e-풀필먼트 ▲ラスト마일 ▲디지털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자사 안재호 이커머스본부장이 엑스포 이튿날인 11일에 '뉴노멀 시대 물류산업 트렌드 및 CJ대한통운 사례'를 주제로 이강

은 내용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소비자의 온라인 주문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e-풀필먼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풀필먼트'

란 온라인 판매자를 대신해 유통사나 물류사가 상품을 보관하고 주문 즉시 상품선별, 포장, 분류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례로 CJ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택배 허브터미널인 곤지암 메가허브 상부층에 e-풀필먼트센터를 두고 이커머스 고객사의 상품을 미리 입고시켜 소비자의 주문이 접수되면 바로 출고-택배배송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다음날 배송이 가능한 융합형 e-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ラスト마일도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안전하고 빠른 배송, 맞춤형, 비대면 배송, 친환경 배송 등 희망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새벽, 당일, 즉시, 지정일 배송 등으로 소비자들의ラスト마일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나 이동중지로 발생하는 인력공급 감소,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 증대로 물류산업에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트렌드 중 하나다.

인력공급 중단 우려, 물동량 증가에 따른 빠른 주문처리, 정확성의 향상과 비용절감이 필요해지면서 물류 각 단계에서 로봇 기술, 자동화 장비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CJ대한통운의 자동화 사례로 물류센터 내 피킹 고도화 시스템, 포장박스 추천 및 자동포장 시스템, 다면 바코드 스캐너 등이 소개됐다.

안 본부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봉쇄, 생산차 운영중단 등의 사태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 재편하면서 물류사들 역시 재고관리와 화물 이동에 대한 가시성 강화, 항공-해상 연계운송, 중국횡단열차(TCR),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같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충북대, 소재 우수기업 적극 육성

강소특구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충북 지역에서 기술 우수 기업 추가 육성을 위해 나섰다.

기보는 지난 11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뉴딜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충북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소재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2018년 7월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 강소특구가 지정됐다. 오창과학산업

단지를 배후공간으로 구성한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스마트IT 부품·시스템을 특화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강소특구 소재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술평가와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공제, 기술보호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해 충북 청주 강소특구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R&D 특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강소특구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등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출범

중기기본법 개정에 명칭 변경
오동운 원장 "위상·역량 높일 것"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 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법정 연구기관의 명칭이 바뀌에 따라 지난 11일 출범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승격된 이후 4년 만에 중소벤처 관련 국가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립한 셈이다.

오동운 초대 원장은 "중기벤처연 출범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확실한 대안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최고 국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위상과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



지난 11일 서울 대방동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범식에서 (앞줄 왼쪽부터)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박순환 건우정공 대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동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동선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연

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출범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연구를 추진하고 양질의 연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전문 연

구기관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송갑석 의원, 김교흥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그리고 김인호 초대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전임 원장 등이 참석해 연구원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승호 기자

"침실 스타일링 '시몬스 룩' 경험 하세요"

하월곡에 '시몬스 맨션 미아점' 오픈

시몬스가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시몬스 맨션 미아점'을 새로 열었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 침대 본사가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진열 제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100% 지원하는 매장이다.

대리점주에게는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매장 운영과 제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일관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몬스 침대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몬스 맨션 미아점은 현대백화점 미아점, 이마트 하월곡점을 비롯해 LG전자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상업 시설이 모인 핵심 상권에 위치해 이사 및 혼수를 준비하는 고객들의 유입이 기대된다. 또 신혼부부 및 가족 단위 거주 비중이 높고 있는 길음 뉴타운과 장위 개발 지역 중심부에 자리 잡아 삼각산동, 돈암동, 성북동, 미아동 등 강북구와 성북구의 수요를 폭넓게 아우를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나이스뷰티 강남점 오픈

프랑스 화장품 아이오마 체험매장

청호나이스는 화장품 브랜드인 나이스뷰티가 오프라인 매장인 나이스뷰티센터 강남점을 새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나이스뷰티센터는 2019년부터 청호나이스가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프랑스의 맞춤형 화장품 IOMA(아이오마)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다.

아이오마는 피부타입 측정 후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세계최초로 보유했으며 현재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 소개되고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다.

아이오마 대표 제품인 마크렘은 내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한 뒤 진단 내용을 아이오마 인랩(화장품 제조기)

에 입력해 8가지 세럼을 체계적으로 조합해 탄생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이다. 아이오마는 개인 맞춤형 화장품 외에도 보습, 활력, 재생, 정화, 광채, 진정, 지복함, 브라이트닝, 프로페셔널, 바디까지 현재 총 10개의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996년 화장품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화려하진 않지만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대표 브랜드로는 카베렐라, 휘엔느, 아이오마 등이 있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G7 동반 참석한 김정숙 여사, 美·日 정상 배우자와 첫 만남 /사진 뉴스스
▲ 안철수, 이준석 당선 첫 입장 표명 "정치 변화가 시대정신"

▲ 작년 징계 지방공무원 1432명...대부분 '숨방망이'
▲ 박용진 "이재명 기본주택, 청사진만 잔뜩...실체 모호"



▲ 정의용·블링컨, 외교장관 회담...“北 대화 견인 공조”
▲ '이준석 돌풍' 호남 정치권 촉각...“민주 텃밭” 대선·지선 격랑 예고 /사진 뉴스스

한강 투신시도 AI로 막는다

서울기술연구원-소방재난본부 협력 한강교량 맞춤형 CCTV로 관제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

한강교량에서 투신 시도를 감지해 인명사고를 막는 기술이 개발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본부 수난구조대의 출동 현황 정보, CCTV 동영상, 감지센서 데이터, 투신시도 현황 정보, 신고이력 및 통화내용(문자)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한강교량 투신시도 관련 탐지-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개발한 관제기술은 인공지능이 동영상 딥러닝으로 투신 시도자의 패턴을 학습해 위험상황을 탐지-예측한 뒤 해당 지점의 CCTV 영상만을 선별,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강대교.

/김현정 기자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선별관제로 투신 전후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모니터링 공백을 최소화해 관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는 여의도, 반포, 독섬, 광나루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교량에 설치된 CCTV와 감지센서(장력, 레이저) 등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날 본부에 따르면 매년 서울시내 한강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시도는 평균 약 486건이다. 구조대의 활약으로 투신 시도 대비 생존 구조율은 96.6%에 달한다.

이번에 개발된 관제기술은 오는 10월 구축 예정인 '한강교량 통합관제센터'에 시범 적용된다.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을 연말까지 테스트하고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내달까지 악기 기증으로 나눔 실천

서울시, 수리 후 재기증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악기 기증·나눔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조율한 다음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를 재기증하는 '악기기증·나눔'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간 시는 총 1789점의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조율한 뒤 취약계층 학생 등에 1536점의 악기를 재기증했다.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가진 시민 누구나 나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시는 기증받은 악기로 실력을 쌓은 시민·학생들의 연주회부터 생활 예술오케스트라 콘서트까지 다양한 후속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악기를 기증받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정부,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4~20일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 내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하구, 연안 그리고 대형댐 등 34개 댐 상류 지역 주변에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비닐류 쓰레기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킨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큰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 폐농약

병·폐비닐류 영농폐기물, 초목류 등 방치 쓰레기가 집중 수거 대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올해 처음 참여해 농업용 저수지 안 방치 쓰레기를 치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4일 대형댐 인근 옥천군 석호리를 찾아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친다"며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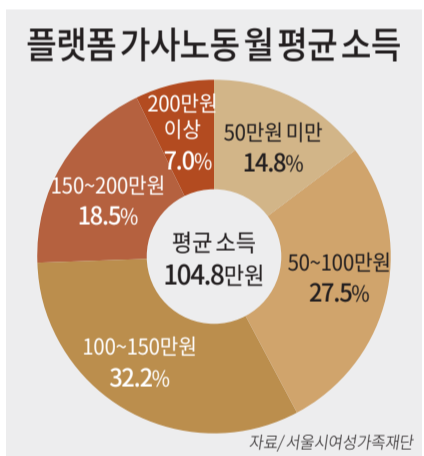
플랫폼 가사노동자, 월 105만원 번다

시간당 소득 1만49원 서울시 생활임금 못 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104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소득은 1만49원으로 서울 지역 물가를 반영한 서울시 생활임금(1만523원)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플랫폼 가사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의 14.8%는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었으며, 27.5%는 월 50만~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 미만은 32.2%, 150만~200만원 미만은 14.7%에 그쳤다. 있다 하더라도 도움은 18.5%, 200만원 이상은 7%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상해, 무리한 요구 등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플랫폼 기업이 이를 조정·해결하는 절차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7.1%밖에 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제10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68년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재단은 "지난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줄곧 법적 노동자 지위에서 배제돼왔던 가사노동자가 드디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특징, 향후 전망과 함께 플랫폼 가사노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교통공,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캐릭터 활용... 창작그림 모집

서울교통공사는 '또타 일러스트 공모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또타는 2017년 통합공사 창립 이후 서울 지하철을 대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공사의 공식 캐릭터다. '또타'에는 '또, 또, 타고 싶은 서울 지하철'이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전동차 측면 모양을 형상화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참신한 모습으로 표현해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식 캐릭터인 '또타'를 활용해 서울 지하철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창작 그림을 모집하는 공모전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나 팀이 아닌 개인으로만 응모 가능하다.

공모전의 주제는 따로 없으나 그림에 또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전체적인 내용은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모기간 중 1회만 접수, 응모 후 수정은 불가하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공모전의 총 상금은 600만원이며, 공사는 총 3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과 부상(또타 인형)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안전지킴이단과 시설물 점검

관내 16개 지역

서울시는 안전지킴이단과 함께 이달 23일까지 한강, 종로천 등 관내 16개 지역의 자전거도로와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자전거단체 협의회 등 비영리 민간 자전거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안

전지킴이단은 4인 1조로 편성돼 하루 평균 20km 구간을 순차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수리, 교체, 보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9월 장마철 이후에도 풍수해로 파손 우려가 있는 자전거도로와 시설물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4일 (월)

음력: 5월 5일

수도권 날씨

20~3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05:10 | 해질 19:55

연천 18/30

동두천 18/30

가평 16/30

서울 20/31

양평 20/30

용인 20/30

평택 18/30

수원 20/30

인천 19/27

파주 18/30

백령도 16/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中, 스옌市에서 대규모 가스관 폭발로 다수 매몰 /사진 뉴시스
- ▲미 텍사스 오스틴서 총기난사로 14명 부상... 2명 수배

- ▲WHO "G7 약속한 백신 턱없이 부족, 1년새 10배 필요"
- ▲홍콩 민주활동가 아그네스 차우, 7개월 만에 석방돼



- ▲사우디, 2년 연속 해외 하지 순례객 안 받아
- ▲EU-영국, G7서 브렉시트 '북아일랜드 협약' 둘러싸고 충돌 /사진 뉴시스



[산업] 국내 수입車업계 사후 서비스 개선 소비자 만족도 강화 08



Life

[라이프] GS25 상품 주문하면 로봇이 간다 11



“이주노동자 노동권 위해 ‘지속 가능한 희망’ 필요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 사무국장

“미나리는 잡초처럼 이렇게 막 자라 나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들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미나리는 윈드풀이란다.”

최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세계를 들썩인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에서 한 대사이다. 영화가 한국인의 미국 이민사를 표현한 이야기인 만큼 이 대사는 많은 이야기가 함축돼 있다. 미나리는 주로 물가나 습한 곳, 혹은 더러운 물을 가리지 않고 자란다. 이에 ‘미나리’를 통해 이민자로서 한국인의 강한 생명력에 대해 표현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영화 ‘미나리’ 속 이야기처럼 고난과 역경 끝에 희망을 찾았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0시간이었지만 이들의 24.6%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노동 시간이 법정 기준(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성별·직종·취업 여부를 고려해 선정한 비전문취업 노동자 692명, 방문취업·재외동포 노동자 735명 등 총 1427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0.7%는 주중 노동 시간이 60시간을 넘긴다고 밝혔다. 체류자격별로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23.9%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해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다.

단순하게 같은 기간 대다수 한국인 근로자가 주52시간 제도 적용을 받는 점과 비교하면 외국인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셈이다. 이에 2011년 설립한 이주



지난 2020년 방글라데시 정기교류 과정에서 있었던 줄푸들거리 인형극 직후 현지 사람들과 송은정 사무국장이 같이 촬영하고 있다. /송은정 사무국장 제공

이주노동희망센터, 방글라데시 학교 설립서 시작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권리 위해 활동 기숙사 사진전·영화제 등 노동권 위한 문화사업 이주노동자 문제해결 위해 법 개정·기념사업 계획



노동희망센터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작은 이주 노동 문제 해결 위한 ‘사회운동’

송은정 사무국장이 말한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시작은 ‘이주노동 활동을 하다가 강제추방 당한 활동가’로부터였다. 한국사회 노동 문제에 맞서 저항하다 강제추방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이주 노동’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현지에서 학교 설립을 한 게 사업의 시작이었다는 것.

송 국장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교육사업 자체에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강제추방 당한 활동가들이 방글라데시에서 학교를 통해 자리를 잡고 이주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이주 노동을 하고 돌아온 노동자들과 그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에서 출발한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다양한 국내사업도 하고 있다. 매해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 지난해 연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숙행 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기숙사 온·오프라인 사진전, 이주노동 영화제와 서울이주민예술제 등 문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송 국장은 이들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당장 어려움에 부딪친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한 단

체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며 “이주노동자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지 않고, 시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지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문화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전을 연 것도 많은 시민들이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를 알아한다는 심정이었다. 고무통을 물어놓고 천막을 가려놓은 수준의 이주노동자화장실 사진 액자 아래에 어떤 시민이 ‘미안합니다’라고 포스트잇을 써 붙였는데, 그런 마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관심에서 공감까지…목표는 ‘의미 있는 지속 가능성’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사회에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관심을 받게 됐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존재함에도 사실상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 이주노동자가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송 국장은 “거리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하면 항상 해당 지역 경찰들이 나온다. 사진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들이 사진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많이 공감하더라”며 “사진전 관련 기사에 공감한 국회의원이 연락이 와서 기숙사 문제 토론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이 최근 기억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상담 과정에서 겪은 일이었다. 미등록 아동의 경우 공무원이 고유식별번호를 생성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상담 결과 관련 협조는 잘 이뤄졌고, 뜻밖의 성과도 거뒀다고 송 국장은 말했다.

“상담 전화를 한 분이 미등록아동을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 싶을 정도로 호의적인 분이였음에도 계속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통화할 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정말 좋은 단어라며 지역 어린이집 원장에게 다 공유하겠다고 했다. 뜻밖의 성과였다.”

앞으로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사진전이나 영화제 등 문화사업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송 국장은 “법 제도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비정규직보다 더 낮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확보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올해 하반기 ‘이주노동 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이주노동자 희망상’ 등 기념사업도 계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송 국장은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 희망상에 대해 “노동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 활동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며 “이주노동자를 사업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문제 해결의 주제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주민 활동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송 국장은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목표에 대해 ‘의미 있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 계획으로 ‘10주년 기념 발전방안 마련’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발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확대’, ‘전진’보다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 가능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 그래서 목표는 ‘의미 있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지난 4월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에서 우다아라이이주 노조위원장, 한용문 센터 이사장, 송은정 사무국장, 김지호기획팀장(왼쪽부터) 등이 함께 촬영하고 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팬들이 직접 뽑는’ 프로야구 올스타 베스트12 팬투표, 14일 시작
▲ ‘심장마비 쓰러진 에릭센, 선수 생활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사진 뉴시스

▲ “에릭센 사랑해” 루카쿠, 결승골 넣고 동료 위한 세리머니
▲ “갑질 폭언” vs “조직적 저항” 마사회 감사결과 나온다



▲ ‘방랑식객’ 故 임지호 추모 물결…강호동·황제성 등 빈소 찾아 /사진 뉴시스
▲ ‘실종경보 문자’ 위력…발송 30분 만에 치매노인 발견